

A Walk In Nowon

노원산책



숲이 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름다운 숲길 산책로,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카페의
커피 한 잔에 고요한 미소가 번진다.
숲과 자연에 동화된 사람들이
그리는 감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본다.

A Walk In Nowon

노원산책

숲이 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름다운 숲길 산책로,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카페의
커피 한 잔에 고요한 미소가 변진다.
숲과 자연에 동화된 사람들이
그리는 감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본다.





서울의 숨은 보석 노원산책

A Walk In Nowon

사신이 머무는 곳 어디든 숲과 공원이 자리한 도시, 노원을 소개합니다.
산과 하천을 자원 삼아 권역별로 조성된 힐링 공간과 시설들은 삶 속
여유를 선사하고, 계절마다 펼쳐지는 특색 있는 축제와 공연들은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복잡한 서울의
도심에서 한 편 바껴나 있어 오히려 숨은 보석처럼 느껴지는 도시.
노원산책이 서울의 숨은 보석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서울의 숨은 보석

노원산책

A Walk In Nowon

CONTENTS

Chapter 1

노원을 쓰다



포레스트 노원

산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하천이 흐르는 자연의 도시	12
숲과 하천을 나의 정원으로, 자연 치유와 힐링의 도시	14
역사 위에 예술이 꽂 피는 역동감 넘치는 도시	18
교육에 문화의 즐거움이 더해진 낭만의 도시	20

노원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직주락(Work, Live, Play)의 콤팩트 시티를 설계하다	23
디지털 바이오 시티(S-DBC)를 설계하다	26

노원의 오늘을 쓰는 사람들

노원 숲해설사 이영미	29
민부곤과자점 민부곤 대표	32
중계청춘카페 김옥환 바리스타	36
더숲 상주작가 김은지 시인	40
동네책방 불암책방 이재윤 대표	44
공릉동 브런치 카페 메모아 임종효 대표	48

Chapter 2

노원을 그리다



노원의 자연을 그리다

초록의 정원, 힐링타운	55
도심 속 휴식, 강을 노래하라	70

노원의 공간을 그리다

배움이 머무는 곳, 노원	73
노원을 브랜딩하다, 복합문화공간	77
노원, 예술 위를 걷다	79
경험 한 줌, 추억 한 페이지	82
도심 속 책의 향연, 동네책방	85
노원, 역사를 품다	87

노원의 맛을 그리다

노원 사람이 추천하는 전 맛집, 로컬 쿠진	91
왁자지껄, 청년들의 점심시간	94
후대에 남기고픈, 백년가게	96
전문가가 인정한, 노원 블루리본 서베이	98
시장에 가면	100

노원의 감성을 그리다

노원 카페산책	102
골목을 채우는 짙은 향, 로스터리 카페	105
늦은 아침을 즐기는, 브런치	107
걸어서 빵지순례, 디저트&베이커리 맛집	108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한잔 술, Pub&Bar	110

Chapter 3

노원을 살다



일상이 축제 NOWON FESTA

114

CHAPTER 1

노원을 쓰다

주거와 자연, 그리고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노원. 현재에서 더 나아가 직주락의 콤팩트
시티로의 미래를 디자인 중이다. 노원을
이루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포 레 스 트 노 원

“일상 속에 숲과 자연이 많았으면 좋겠어.”

“대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노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녹지율 59.1% 넘버원으로

서울이면서 풍부한 자연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곳이다.

4개의 산(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과

4개의 하천(종량천, 당현천, 우이천, 목동천)이 어우러져

자연과 주거가 조화로운 숲속의 도시, 정원의 도시이다.



산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하천이 흐르는 자연의 도시



포토스토리 노원



역사 위에 예술이 꽂 피는
역동감 넘치는 도시



교육에 문화의 즐거움이
더해진 낭만의 도시

11

01. 산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하천이 흐르는 자연의 도시



12
'일상이 숲과 자연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는 최근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고,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을 앓으며 이런 생각을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도시에서의 생활은 편리하지만 콘크리트로 뒤덮여 자연이 부족한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생활이 편리하면서 동시에 도시 속에 자연도 풍요로운, 두 가지를 다 갖춘 곳은 없을까?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노원의 녹지율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인지 도회적이면서도 러스틱한 풍경이 잘 어우러진 매우 독특한 풍경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동쪽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능선으로 이어지고 서쪽에는 초안산과 영축산이 솟아 있다. 수락산, 불암산은 화강암 암벽과 계곡, 울창한 수목이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하며 초안산과 영축산은 도시 내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마치 동화에서나 나온직한 숲속의 도시처럼 시선이 머무는 곳 어디든 숲이 자리하고 있다.





불암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수락산 계곡

노원의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노원을 흐르는 하천이다. 우이천은 도봉산에서, 당현천은 수락산에서, 묵동천은 태릉골프장에서 발원하여 시내를 가로질러 흐른다. 그리고 이 3개 지류의 물을 노원의 대표 하천인 중랑천이 하나로 모아 한강으로 운반하고 있다. 노원 지역 곳곳은 다양한 물길로 이어져 비로소 하나가 된다. 화강암 암벽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웅장한 산이 아버지의 든든한 등과 같다면 하천은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하천은 사람들의 삶 속에 더욱 깊게 들어와 일상의 쉼터가 된다.

종래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는 흔히 600년 전 조선시대에 만든 도심지역의 궁궐이나 60년 전 현대 한국 시대에 지은 강남지역의 화려한 상업문화시설을 꼽았다. 이 모두 귀중한 인공자원(人工資源)이다. 하지만 생태계 보존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 시대, 노원의 산과 하천같이 수억 년 전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자원의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노원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라는 말이 나을 만큼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일상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가히 '서울의 숨은 보석'이라 이르기에 모자람이 없다.



초안산 수국동산 숲속 힐링 피크닉장

02. 숲과 하천을 나의 정원으로, 자연 치유와 힐링의 도시



우리는 어떻게 자연을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의 하나로 ‘정원(庭園, garden)’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집에 정원을 두었다. 마당과뜰에 꽃을 심고, 텃밭과 연못도 만들었다.

최근에 이 정원 만들기가 다시 붐을 이루고 있다. 도시화, 개인화, 초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솔루션으로 어느 때보다 정원의 효능감이 중요해진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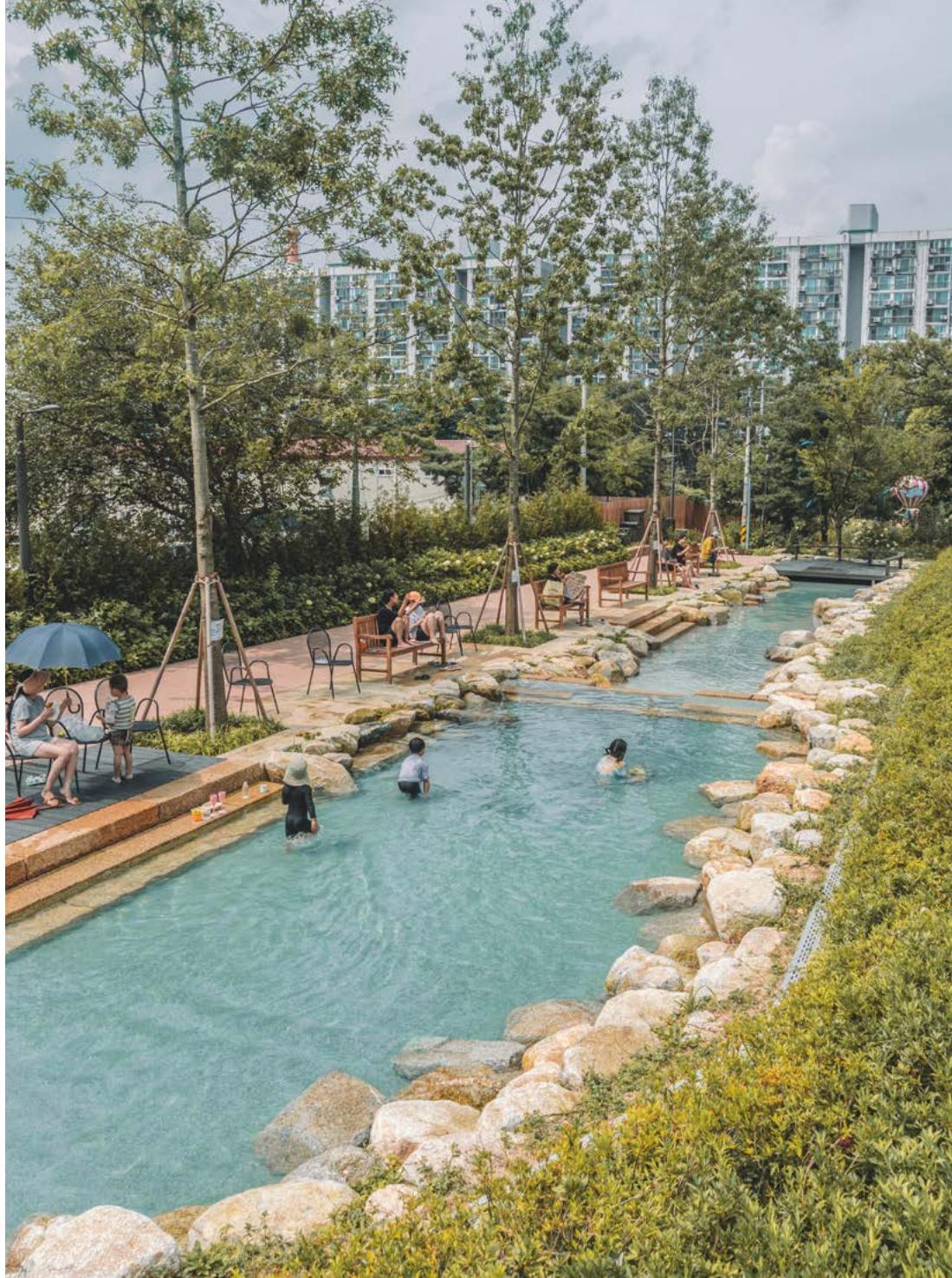
14

이 정원 개념을 자연이 풍요한 노원으로 가져오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3중의 정원이 가능해진다.

먼저, 일반적인 ‘집의 정원’이다. 최근 집에서 식물을 길러 공기를 정화하고 감성을 달래는 플랜테리어가 인기이다. 노원구에서는 자기 집에서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정원학교, 반려식물병원, 홈가드닝 샵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집 주변의 ‘동네 정원’, 즉 공원이다.

노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공원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동네마다 다른 느낌을 준다. 노후한 공원들을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동네 정원으로 만든 덕이다. 새로 꾸민 공원의 일부는 여름철 물놀이 장이 되기도 하고, 가을철 등 마을축제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동네 생활공원과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가꾸는 일에는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마을정원사를 육성해 16개소의 휴가들을 조성하고 유지관리까지 주민의 참여 속에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비석골 근린공원’은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불암산 힐링타운



카페포레스트 정원

마지막으로 노원의 ‘산과 하천, 초록의 정원’인 힐링타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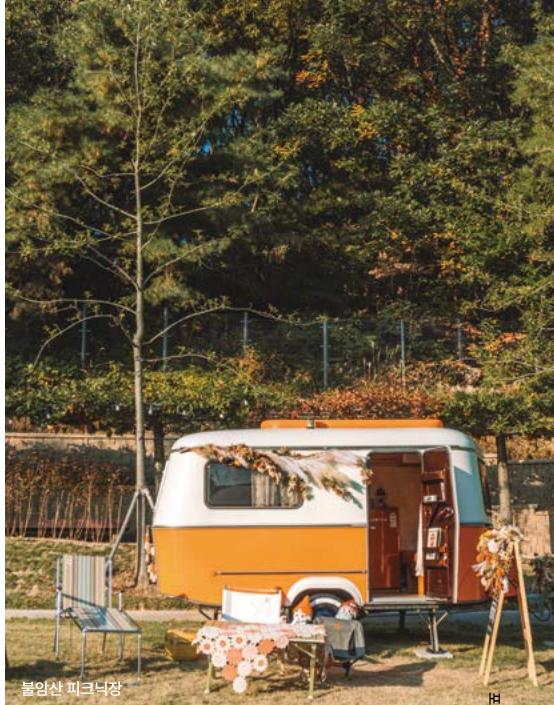
노원을 거대한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노력은 권역별로 조성된 힐링타운에서 정점에 이른다. 불암산 힐링타운, 수락산 힐링타운, 영축산 힐링타운, 초안산 힐링타운에 이어 경춘선 힐링타운까지 총 5개의 힐링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인근 동네는 물론 주변 지자체에서도 여가를 즐기러 오는 수준으로 완성도가 높다.

4개의 산에는 현재 조성 중인 초안산까지 포함해 모두 무장애 순환산책로를 갖추고 있다. 이들 데크길은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 어린이, 반려동물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숲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 됐다. 아울러 힐링타운 조성 지역은 불암산, 초안산 사례에서처럼 쓰레기 투기, 불법 경작을 비롯해 훼손되고 버려진 땅을 재생시키며 탄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노원은 '4개 산과 4개 하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3종의 정원을 만들어 낸 덕에 모든 주민이 정원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고 즐기듯이 이러한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단순하게 이용만 하는 차원을 넘어 자연을 보전 재생하는 활동, 탄소중립(Net-Zero)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원은 환경부 및 국토부가 선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선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원구의 선도적인 계획은 향후 수도권의 노후 인프라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치유를 돋는 필수 요소다.” 환경운동가 이자 저널리스트인 리처드 루브는, 자연 회복과 경험이 지구환경차원뿐 아니라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연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연 경험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는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노원에는 문을 열면 자연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자연이 가깝고, 아이들의 자연체험 프로그램도 많다. 노원에서 숲과 강을 정원 삼아 자연 치유와 여유를 체험해 보기를 권한다.



포토
도쿄 노원



17

03. 역사 위에 예술이 꽂 피는 역동감 넘치는 도시

노원에는 수천 년에 걸친 선조들의 다양한 문화가 역사문화 유산으로 전승되고 있다. 삼국시대에 노원은 한강유역의 요충지에 입지하여 백제·고구려·신라가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 흔적을 불암산성과 수락산 보루를 통해 알 수 있다. 나아가 학림사, 학도암, 용골암, 도안사 등의 전통사찰은 수락산과 불암산 깊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강릉과 초안산 분묘군, 한글 묘비문이 새겨진 이윤탁 한글영비 등이 있다.

특히 도심의 궁궐 문화와는 다른, 마을과 농업을 둘러싼 개성 있는 전통문화자원도 주목된다. 먼저 모심기와 김매기를 할 때 부르던 마들농요는 서울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 서울에서 드문 사례이다. 이 외에도 마을 단위의 산신제, 치성굿, 대동굿 등도 특징적이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30년대 후반의 개량 한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각심재, 경춘선 철도와 함께 개설된 구 화랑대역,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본관과 광산학과 교사 등이 있다.

학림사 학도암



현대에 들어와 노원의 문화는 획기적으로 다채로워진다.

먼저 노원 문화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노후한 내외부 시설과 장비 등을 리모델링해 품격있는 공연과 전시의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서울 동북권 최초로 건립된 노원어린이극장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문화공연 예술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미술, 서예, 사진 등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 공연 프로그램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계예술마당과 경춘선 숲길 갤러리가 운영된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도란도란 정다운 담소가 오가는 문화공간 정담, 청년 예술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지원, 육성하고 있는 문화살롱 5120까지 시민 누구나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창작실, 공동연습실, 체험공간, 전시공간, 공연공간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화공간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만들어 예술가와 관객을 연결한다. 노원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풍요를 이뤄준다. 노원은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역동감 넘치는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해외블루칩작가전시회



노원을 강북 제일의 학원가로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노원은 교육특구로써 공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교육 기관이 164개교(유치원 59, 초등 42, 중등 27, 고등 25, 대학 7, 기타 4)에 이르는 만큼, 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장에서 시작해 청소년들을 위한 천문우주과학관, 수학문화관, 청소년 미래진로센터 까지, 그리고 목공예 체험장, 도자기 체험장, 더불어숲, X-Top 등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체험시설까지 다채롭다.

노원은 걸어서 10분이면 동네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기존의 권역별 거점 도서관에 더해 지역 생활권마다 공공 도서관이 새로이 확충되고 있다. 도보권에 위치한 노원의 도서관은 단순한 책대출 공간을 넘어, 독서와 학습 문화가 일상화되는 문화·여가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8개 공공 도서관, 25개 작은 도서관에 더해 북카페를 갖춘 18개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들은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규모 문화 행사가 열리는 커뮤니티 허브로써 노원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도시 면모에 예술과 감성이 입혀지면 노원은 낭만의 도시가 된다.

더 이상 기차가 달리지 않는 경춘선 철로는, 경춘선 숲길로 재탄생하며 과거의 청춘을 되새기는 사람들과 현재의 청춘의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발걸음을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경춘선 숲길은 주변 인근 골목에 자리한 카페들과 함께 아날로그 감성의 산책길로 인기다.

벚꽃이 흘날리는 당현천에서, 노을 지는 산자락 아래에서,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지나가는 계절과 함께 음악이 흐른다. 계절별로 펼쳐지는 축제의 현장에서도 짊음과 낭만이 흐른다. 불암산 철쭉제,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수제맥주축제, 댄싱 노원까지 거르고 갈 축제가 없다. 사계절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롭게 열리는 문화가 만개한 공연과 행사 덕분에, 노원에서의 일상은 축제가 된다.



월계도서관



화랑대 철도공원



노원수제액주축제

노원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노원은 1980년대 후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다. 현재 도시를 둘러싼 시대 환경은 주거와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 재생, 대규모 개발 부지를 통한 디지털 바이오단지 조성 등 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노원은 이 전환기에 더욱 살기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 환경과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매치하여 백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직주락(Work, Live, Play)의 콤팩트 시티를 설계하다



노원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23

광운대역세권 공공도서관

서울시 자치구 중 30년이 넘는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노원구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단지만 해도 62개 단지에 달한다. 한때 63만 명까지 증가했던 노원의 인구는, 주거 공간 노후화로 인근 경기도 신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며 50만 명 선 밑에서 맴돌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 노원의 전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지며 삶의 근거지가 되는 내 집, 거주 공간의 개선과 함께 도시 공간의 광범위한 재편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 성냥갑 모양의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자연과 미래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주거 공간을 기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조감도

디지털 바이오 시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불어넣음으로써 집 가까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주 근접 도시로 만들고, 여기에 노원이 품은 산과 하천의 자연을 일상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만들어진 여가 힐링공간이 더해지면, 근접 생활권 안에서 일(Work)하고, 거주(Live)하고, 놀(Play) 수 있는 직주학의 콤팩트 시티로의 설계도가 완성된다. 일, 주거, 놀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새로운 트랜드는, 조화로운 공간 구성을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에서 시작해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 동시에 실현해 준다.

현재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월계동의 광운대 역 세권이다. 편하게 운동복 입고 집 근처에서 한 바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반경 1km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갖춘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넓은 광장에서는 품격있는 문화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풍부한 녹지와 보행 인프라는 경춘선 숲길을 통해 더 멀리 더 길게 연결될 예정이다.

24

직주학의 미래 도시 설계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고려는 필수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68.3%에 달하기에,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다. 환경부와 국토부 주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에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노원이 선정된 것은 그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이다. 노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ZEB) 로드맵'에 따라 정부 로드맵보다 1~2년 앞서, 1,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28년까지는 3등급을 달성하도록 추진 중이다.

재개발·재건축에도 탄소중립형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역점적으로 진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탄소 중립형 건축을 적용해 현재 ZEB 5등급 예비 인증을 진행 중으로, 탄소중립형 재개발·재건축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진행될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에도 ZEB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정비 계획 입안 우선 검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주학의 콤팩트 시티 노원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심형 탄소중립모델이 더해져, 사람과 자연과 미래를 연결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노원의 미래를 디자인한다’

25

광운대역세권 근린공원 조감도



노원어린이도서관



디지털바이오시티 조감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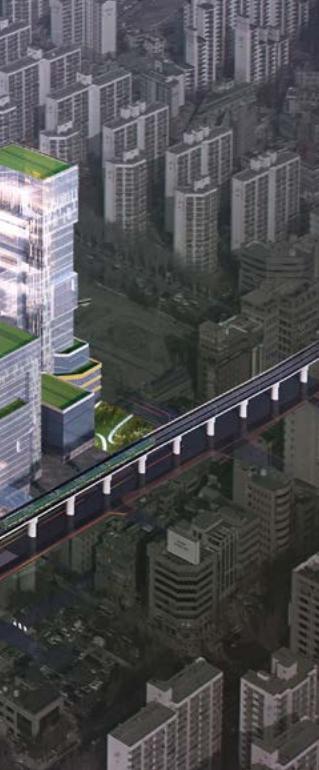
디지털 바이오 시티(S-DBC)를 설계하다

노원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과 4개의 하천이라는 자연 자산, 탁월한 교육 환경으로 교육열이 높아 서울시 3대 학군으로 꼽히는 사회적 자원, 그리고 7개 대학이 밀집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미래지향의 인적 자원은 노원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다. 지리상 서울의 동북권 가장자리에 있어 노원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노원을 알고 노원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 힐링과 여가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하나같이 입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삶의 질 측면에서는 문화도시, 축제도시, 힐링도시로서 첫 손에 꼽히는 도시지만, 베드타운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족한 일자리 문제는 노원이 도시 발전을 이뤄내는데 발목을 잡아왔다.

지금 노원은, 강북 발전의 중심에 서 있다.

노원구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제는 기회의 땅이 된 것이다. 사실상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 부지로 일컬어지는 이 기회의 땅에 노원의 미래를 그려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으로 창동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전하면 2027년 상반기에는 노원의 미래를 그릴 흔 도화지가 생겨난다. 이 도화지에 그려넣을 그림으로,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S-DBC)를 설계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 전경



디지털바이오시티 조감도(스케치)

바이오산업은 백신, 정밀 의료 등의 분야부터 종자 개량, 바이오 연료, 생물정화기술 등 식량, 에너지, 기후환경 이슈까지 인류의 생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노원의 부족한 일자리를 해결하고 도시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 S-DBC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토지공급 및 계획 수립, 장기 임대단지 조성,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사전협상제) 적용,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 등 4대 핵심 지원책이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의 밑그림이 차근차근 도화지를 채워나가고 있다. 다만 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작업이기에 그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믿는다. 도화지가 완성되어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날, 노원은 문화도시, 축제도시, 힐링도시를 넘어서서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실현되는 직주락(Work, Live, Play)의 도시로 발전해 있을 것을.

노원을 사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노원이야기

노원의
늘을는들
쓰사람



노원 숲해설사 이영미

자연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숲해설사. 자신의 직업을 가슴에 손을 얹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 이영미 숲해설사를 따라 불암산을 오른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 아이들에게 자연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자란다는
것을 알려 주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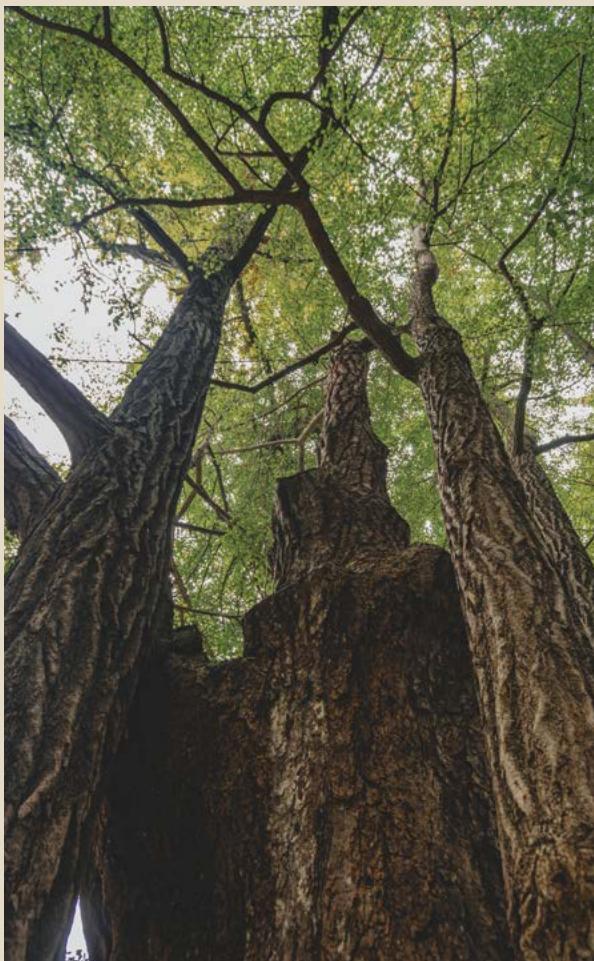
간단한 자기소개와 숲해설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노원구에서 처음 숲해설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숲해설사로 19년째 활동하고 있는 이영미입니다.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 등 노원의 숲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연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사람. 그 자연을 만날 때 착하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요.

‘착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연과 처음 관계를 맺는 아이들, 혹은 자연을 가까이하기 어려웠던 소외된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왔을 때 만남의 첫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자연에 다가갈까, 어떻게 숲으로 들어갈까. 그 처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의 업무가 이해되실 것 같아요.

불암산 힐링타운



산과 숲, 자연이 풍부한 노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럼 주로 산에서 활동하시나요?

노원은 산이 많지만 공원도 정말 많거든요. 공원에도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어서 공원으로도 해설을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자주 숲과 자연을 만나야 하는데 그 이동거리가 멀면 쉽게 오지 못하죠. 그럴 때

인근의 가까운 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원에서 숲 놀이를 하고 그곳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아이들이 자연을 배울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공원은 자연으로의 입문이죠. 내 주변의 자연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교육이고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즐겁게 놀면서 관찰하고 자신도 그곳에서 같이 어우러져 자란다는 것을 알려 주죠.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네

요. 공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노원에서 도서관과 공원이 이어지는 풍경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보니 제가 처음 이 일을 하게 되었던 동기도 도서관이랑 인연이 있네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도서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숲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집 교육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숲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 봉사할 때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19년 전이라 숲해설사라는 것이 생소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노원은 노원중앙도서관이 온수근린공원과 이어져 있고,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삼간봉근린공원과 이어져 있고, 숲과 도서관은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숲해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시나요?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암산 자락길은 안전성이 잘 갖춰진 곳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산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자연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함을 느낀다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힐링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산이 안전하고, 즐길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노원의 산들은 무장애숲길을 만들어





서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안전하게 산을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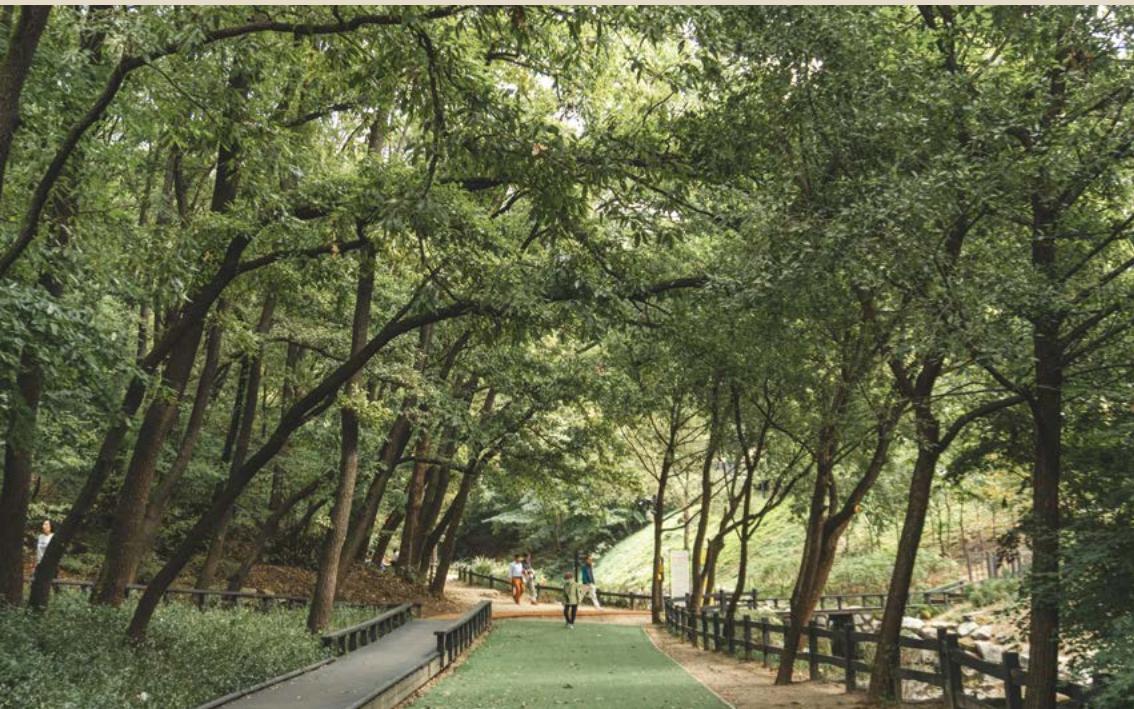
서울 토박이였던 제가 19년 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10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자연을 몰랐어요. 그때는 선생님도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하면서 그렇게 1년

을 보내고 나니 그 두렵던 존재들이 친근해지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숲해설이라고 해서 나무 이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19년 동안 불암산을 다니면서 소나무와 참나무의 생태 변화, 도토리나 청설모의 움직임도 파악하고 있어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청설모가 야위었더라고요. 이렇듯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연과 사람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원구에서 산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 있는 나무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저

희와 함께 관찰하시는 거 같아요. 나무가 이상하면 알려주기도 하시고. 처음 불암산 힐링타운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자연이 훼손된다는 생각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불암산 힐링타운 입구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정비되기 전에는 저 큰 은행나무가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서 나 죽을 것 같아’라며 소리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깨끗하게 주변이 정리되면서 상상하게 잘 자라나고 있어요. 이곳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 타협점을 찾은 거 같아요. 저 나무들은 안정감을 찾게 되고,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자연과 사람은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야 하니까 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부곤과자점 민부곤 대표

아름드리 가로수길에 햇살이 가득 내린 날, 백년가게 민부곤과자점의 제과제빵 명인 민부곤 대표님을 만났다. 그의 인생을 몇 시간의 담소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빵’이라는 한 길에 평생을 쏟은 그의 삶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려 한다.



32

들어오는 길에 가로수가 멋져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네가
참 멋지네요. 이곳에 가게를 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동네가 참 이쁘죠? 1989년 3월에
이곳에 오픈했어요. 오픈하면서
노원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제과제빵 부문 서
울시 백년가게 1호점이라고 들었
어요.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백년가게가 장인 정신이 있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사람
에게 주는 거라고 해요. 제가 경력
이 오래돼서 서류심사에서도 그동
안의 경력을 보고 선정해 준거 같
아요.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오래
한 곳에서 제과점을 하는 데가 많
지 않고 하다가 다들 그만두는 경
우가 많으니까.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가 우리 가게예요. 서
울시 1호라는 점도 저한테는 의미
가 크죠.

사장님의 제빵 인생은 언제 어디
서 시작되신 건가요?

처음 빵 기술을 배운 건 내가 16살
때예요. 1954년생인 내가 16살 때
부터 빵기술을 배웠으니 한 55년
쯤 되나요? 그때 서울 무교동에,
지금은 없어진 풍년제과가 있었어
요. 거기서 빵을 처음 배우기 시작
해서 1년 정도 일한 뒤에, 당시 명
동 미도파백화점 건너편에 뉴욕제
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14년 넘게
근무했어요.



“ 가면 갈수록 노원이 자연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

뉴욕제과가 강남으로 이전할 때는 강남으로, 공장을 군포로 옮기니 또 군포에도 가고, 회사따라 다녔었죠.

그럼 직접 과자점을 운영하신 것은 언제인가요?

뉴욕제과에서 14년 근무한 후에 인천에 있는 제과점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면 인천 현대극장 뒤에서 혼자 조그맣게 도넛을 튀겨서 팔았어요. 그건 내 가게라고도 할 수도 없지. 도로변에서 조그맣게 그냥 한 거예요. 그래도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인천 부평에 처음으로 내 가게를 열었어요. 그게 아마 1984년 정도일 거야. 4년 정도 했

는데 심곡동, 송내역 두 곳에서 장사를 했어요.

와, 장사가 잘되신 거군요? 그런데 노원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장사는 그냥 그냥 적당히 잘 됐어 (웃음). 그런데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기술이 있는 데 이 시골 경기도에만 있지 말고 서울로 가자.’ 결심하고 부천에서 서울까지 88고속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 친구가 쌍문동에서 제과점을 오픈해서 거길 갔는데, 사실 나도 자리를 봐둔 게 하나 있었거든. 그게 바로 이 자리야. 근데 자릿세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잠실에서 제과점을 하던 친구가 자기가 자리를 봐둔 곳이 있는데 원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맞춰 놨는데 자기는 너무 멀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글쎄 그게 내가 비싸서 포기했던 바로 이 자리였던 거야. 운명처럼 다시 와서 계약을 하고 그 뒤로 지금 까지 장사하고 있어요. 그게 1989년이에요.

당시 노원은 어땠나요?

허허벌판이었지.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도로도 아직 이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노원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휴일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원은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 불암산, 수락산을 비롯해서 둘레 길도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쉽게 등산할 수 있게 산책로도 많이 생겼고 가면 갈수록 노원이 자연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살기 좋은 도시예요. 평생 365일 일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일요일은 쉬고 있어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적으로 즐기기는 못하지만 불암산, 수락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을 다니고 있어요. 등산을 안 가면 평상시 생각만 해 두던 빵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세미나 같은 것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하죠(조용히 인터뷰를 듣고 있던 따님이 “술도 한 잔씩 하시잖아요!”라며 술 드시는 제스처를 하는데 못 들은 척 무시하는 아버지).

34

따님이 늘 아버님 곁에 있어서 든 든하시죠?

딸이 예전에도 학교 갔다 오면 가게를 봐주곤 했어요. 그러나 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내가 해온 일이고 업적이 있으니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딸이 욕심이 없어. 이 일은 본인 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럼 또 분야를 세분화한 다던가 좀 축소를 시킨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옆에 있으니 의지는 되는데, 많이 다뤄요.

민부꾼제과점이 맛있는 비결, 그리고 제빵 인생의 자부심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만들고 재료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좋은 재료를 써서 빵을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맛은 있는데 비싸다고 하면 갈등이 생기죠. 저렴한 재료로 대체할 것인

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가 중요 한 것 같아요. 처음 이곳에 오픈했을 때 고객들이 ‘정말 맛있다. 그러니 값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재료로 맛있게만 만들어 달리.’고 하시더라고요. 35년 전에 다른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비쌌거든. 고급 재료를 쓰니 그럴 수밖에. 그때 느꼈지. ‘아, 내가 좋은 재료를 쓰면 고객이 알아주는구나. 우리 고객들은 수준이 높구나.’ 그때부터 그 생각으로 변함없이 해 온 게 성공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하지만 지금도 갈등은 있어요. 만약 그 이유로 판매가 안되는 제품이 있으면 중단하는 게 맞지 재료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주세요.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단 ‘내가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이곳에서 빵을 만들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제 희망입니다.





중계청춘카페
김옥환 바리스타

멋진 앞치마와 모자를 쓰고 복잡한 커피 머신 앞에서 익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나이가 지긋한 바리스타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지금이 바로 청춘임을 몸소 증명해 주는 중계청춘카페 김옥환 바리스타와 두련두련 노원에서 사는 이야기를 나눠본다.





모자와 앞치마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계청춘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김옥환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나이는 73세입니다.

커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5년 전 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기 가 너무 답답해서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하고 배워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땄어요. 저녁반이어서 다들 직장인이었는데 혼자 노인이었어요. 그때 20명 모집인데 6명이 모여서 인원이 적으니까 교육을 아주 알차게 받았죠. 일주일에 두 번, 3시간씩 60시간 교육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바리스타가 됐어요.



노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어르신 청춘카페'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중계역에 조성한 '노원실버카페'를 시작으로 공릉·월계·중계청춘카페까지 권역별로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맛 좋은 차까지 즐길 수 있어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핫플이다.

(카페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에 3명이 교대하고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총 30시간 정도만 일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오전 시간과 금요일은 대체로 한가하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공연이 있어서 그 때는 바빠요. 꾸준히 오는 실버 악단 몇 팀이 있는데 이제 팬들이 생겨서 공연 있는 날은 카페가 꽉 차요. 손님들도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재밌어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몸 아플 때가 제일 걱정이죠.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거 말고는 일하는 게 즐거워요.

건강해 보이시고 참 좋습니다. 노원에서 노년을 보내시고 계신데 어때신가요?

저는 인근 다른 구에서 살다가 노원구로 이사 온 지 15년 됐어요. 다른 구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지금도 그곳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

이 내가 하는 활동들 보고 너무 부러워해요. 노원으로 이사 가야겠다 다들 그래요. 아이들 결혼 다 시키고 노원구로 와서 살아보니까 좋은 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문화 생활이 많고, 주변에 산이 다니기 쉽게 안전하게 되어 있고 볼거리나 축제도 많아요. 철쭉, 벚꽃축제, 음악회도 많고 자연과 같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친한 사람 4~5명이 모여서 여러 공모 사업에 참여해요. 그게 뭐냐면, 노원에는 19개 동에 18개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모사업에 지원하면 구에서 재료비를 조금씩 지원해 줘요. 저번에는 마을 그림 그리기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시회도 열었어요. 그 때 다 같이 마을을 돌면서 먼저 사진을 찍고 그걸 보면서 우리 동네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죠.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어르신 레디, 오(Ready, Oh!)>에서 3년간 DJ로 활동했어요. 시민들이 투고한 사연을 읽어주는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산책로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불암산 나비정원에 가고, 철쭉동산도 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상계동 나들이 철쭉동산을 참 좋아해요. 옆에 코스모스 공원이 있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공간도 있고요. 황토 맨발걷기도 할 수 있어요. 불암산 둘레길에 쉬는 곳도 많으니까 도시락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영축산도 지금 산책로가 정상까지 나 있잖아요. 거긴 쉽게 정상까지 누구나 오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초안산은 수국 필 때 동화처럼 이뻐요.



초안산 수국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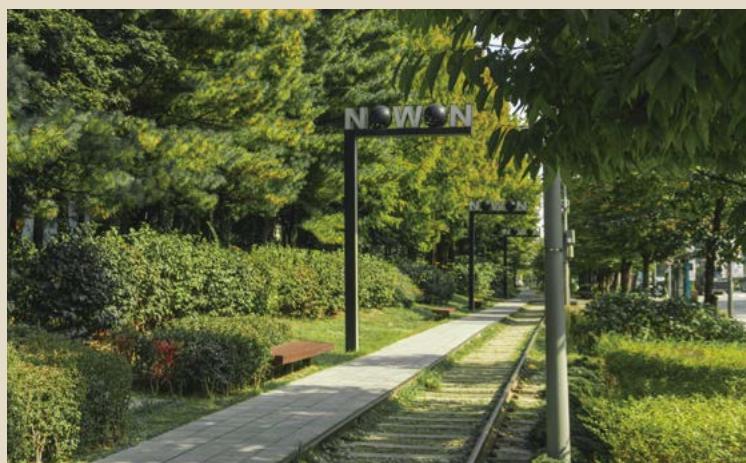
“ 인근 다른 구에서 살다가 노원구로
이사 온지 15년 됐어요.
지금도 그곳 모임에 나가면 다들 부러워해요.
노원구로 이사 가야겠다 그래요. ”



상계나들이철쭉동산



중랑천 황토길



경춘선숲길

더숲 상주작가 김은지 시인

시인, 수필가

201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 등단.

시집 『책방에서 빛소리를 들었다』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여름 외투』 『은지와 소연』 (공저)

『아주 커다란 잔에 맥주 마시기』 와

산문집 『동네 바이브』 가 있다.

책과 커피, 영화와 음악 그리고 그림.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 '더숲'에서 시인을 만났다. 작은 목소리로 '바빠서 시를 쓰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나는 어딘가 불친절해진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김은지 시인이 들려주는 동네 이야기.





시인께서는 현재 '더숲'의 상주작가로 계시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컬쳐플렉스 더숲에서 현재 상주작가로 있습니다. 상주작가 제도는 도서관이나 책방과 같은 문학기반시설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관련된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더숲은 책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곳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작가님의 집필 공간이기도 하군요.

하루에 일정 시간 상주작가의 집필 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 실제로 집필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가가 역량이 되면 창작수업도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막 시작한 수업이 '동네 에세이 쓰기'라는 글쓰기 수업이에요. 총 4회차로 구성된 창작 수업인데요. 제목처럼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동네 이야기를 수필식으로 쓰는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집하는 날 바로 마감됐어요. 그 외에도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 시집을 읽는 '영화로운 책방', '더숲에서 온 편지', '더숲 문학 상담실', '더숲 낭독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네 에세이 쓰기'라는 주제가 참 재밌네요.

노원이 특히 '동네'라는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집필한 『동네 바이브』라는 책에서 노원이라는 동네에 관해 쓴 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노원을 걷다』가 에세이로 출간되었는데요. 노원에 사시거나 혹은 사셨거나, 서울과기대에 문예창작과가 있어서 거기서 공부하셨던 작가님,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들이 노원을 이야기 하는 책이에요. 저도 노원의 책방에 대한 이야기로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 노원구민이다 보니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글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의 친한 동료인 이소연 시인이 운영하고 있는 <도심시>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어떤 공간이 문학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줄까'라는 주제로 시작된 팟캐스트인데, 여러 시인들이 노원의 곳곳을 다녀보며 그 공간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노원을 시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노원이라는 동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도심사는 '도무지 지나칠 수 없는 심정으로 시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 노원에 살면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모두 안전을 잘 챙기시면서 노원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 더 다양
한 방법으로 노원을 알아가고 싶
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은 주로 어떤 것에서 시작
영감을 얻으시나요.
영감의 포인트는 매우 다양합니
다. 예를 들어 더숲의 지하 2층 공
간을 좋아하는데 그 공간이 문장

의 형식으로 옮겨졌다면 저는 목
표를 달성한 거고 그 공간이 영감
이 된거죠. 저는 글을 쓰는 일에 즐
거움이 큰 편이에요. 계속 꾸준하
게 일주일에 한두 편씩. 만약 보고
서 쓸 일이 많아서 그 주에 시를
못썼다 그러면 제가 좀 불친절하
고 차가워진다고 해요(웃음).





작가님이 추천하는 노원의 산책로 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10년 넘게 노원에 살고 있는 데요. 먼저, 중랑천 산책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참 좋아해요. 어제도 자양역에서 태릉입구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달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성북구에 살았을 때에도 자전거를 탔어요. 아시다시피 자전거 타기 엄청 힘든 지역이지만 워낙 좋아하니까 괜찮았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노원구로 이사 왔더니 쭉 평지인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안 타면 손해예요. 자전거 안 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노원에 살면서 자전거를 안 타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모두 안전을 잘 챙기시면서 노원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최근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의 최근작으로는 시집 『여름 외투』, 『아주 커다란 잔에 맥주 마시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노원 생활이 곳곳에 담겨 있어요. 키오스크, AI 기술의 상용화 등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일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작가들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 사람이 지닌 고유성을 기록하는 일을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꾸준히 노원 특유의 분위기, 노원이 지닌 활기를 시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동네책방 불암책방 이재윤 대표

불암산 자락 아래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불암책방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책으로 우리 동네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재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노원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의 도시이자,
안전하고 정주여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



44

참고서에서부터 독립출판 서적까지 큐레이팅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요즘은 교보문고나 온라인 서점들이 워낙 접근이 편하니까 저희까지 모든 책을 가져다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책들을 이곳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큐레이팅을 했어요. 이곳이 학군지다보니 참고서와 학습지의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서점 내부에 의외의 공간이 있네요. 저희 슬로건이 ‘책으로 우리 동네를 바꾸다’예요. 원래 이 공간은 신진 작가나 강사를 초대해서 책과 관련된 북콘서트도 개최하고 낮에는 일반인들이 열린 공간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다양한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로 마련했어요. 왜냐면 이 주변이 아무래도 학습지와 참고서 위주의 서점이 많다보니 저희들만의 강점을 두고 싶었거든요.

‘책으로 우리 동네를 바꾸다.’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동네책방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희는 학원법인 언희당을 운영하면서 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점을 연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아이들에게 국어교육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책과의 접근을 위한 매개체가 되고 싶었어요. 책으로 동네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46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문화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했어요. 그것이 일종의 저희가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점이 아니라 책방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불암책방만의 차별성이라면 무엇일까요?

저희가 국어 교육의 전문 법인이므로 그와 연관된 책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다는 점이죠. 저희 나름

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선택하고 있어서 저희 책방에 오시면 꽤나 괜찮은 양질의 도서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 도서도 마찬가집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시는 책인만큼 안심하고 부모님들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절대적인 양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양질의 서적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뭘 읽을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힐까 고민될 때 저희 책방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면에서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에서는 얼마나 오래 거주하셨나요? 동네에서 자주 가시는 산책로나 추천하는 카페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노원 토박이에요. 초중고 다 여기서 나왔어요. 노원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의 도시이자, 치안이 안전하고 정주여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노원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암산 힐링타운을 자주 갑니다. 철쭉동산, 나비정원, 카페도 있어서 누가 와도 소개하기가 좋아요. 의외로 이 주변에 농장도 많아서 불암산 자락 뒷밭 옆 브런치 카페가 풍경이 아주 좋아요.

문화공간 정담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거기 커피를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동네 조그만 카페인데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 줘요.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백년기업'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책은 계속 읽힐 거니까 불암책방이 오랫동안 지역에 남아서 향토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서점 많이 사랑해 주셔야만 그 가치가 이어질 것 같아

요. 독서량은 크게 줄어들고, 요즘은 또 너무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지만 편리함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책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느끼고 그런 정서를 함께 나누면서 동네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쳐 봤으면 좋겠어요. 선순환을 이뤄서 동네가 독서하는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요.

카페 포레스트



공릉동 브런치 카페 메모아 임종효 대표

사람과 자연을 잇는 공릉 숲길 근처에서 오너의 취향이 가득 담긴 카페를 만났다. 귀소본능에 의해 자란 곳으로 돌아왔다는 임종효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릉동에서 카페를 운영하신 지는 얼 마나 되셨나요?

2019년 5월에 오픈해 어느덧 6년 차가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도 인기 지역인데 공릉동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본가가 노원이어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 많은 노원역 근처를 생각했는데 둘러보니 공릉의 분위기가 저희 가게의 컨셉트와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본가 근처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해요.

48

공릉동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 집이 바로 여기 근처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어요. 예전에 기찻길이 있던 곳에 경춘선 공릉숲길이 만들어졌는데 가끔씩 와서 보면 너무 잘 가꾸어져 있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숲길 공원에는 의외로 젊은 사람들뿐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게에도 남녀노소 폭넓은 연령층의 손님들이 방문해 주고 계세요.





공릉 철길 카페 무드쉐어



경춘선 숲길 카페 금성다방



**조금 전에도 따님이랑 어머니가
오셔서 브런치 드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연령층의 손님들이 편
하게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쓰셨
네요.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어디
인가요?**

가장 신경 쓴 곳은 내벽이에요. 유
럽미장을 한 건데요. 다녀본 여행
지 중에 프랑스를 가장 좋아해서
한국에 유럽미장을 처음 들여오신
분께 부탁해서 어렵게 시공을 했
어요. 덕분에 머리로만 그리던 분
위기를 메모아에 연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50

**정말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
네요. 이 특이한 소품들은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직접 모은 것
도 있고 독일에서 아는 분이 보내
주기도 해요. 택배비가 어마어마
해서 힘들지만요.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
기며 이 공간 자체에 애정이 많습
니다.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
어요?**

제가 공릉에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19가 터졌어요. 저희는 일반음식
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라는
타이틀이 커서 두 달 동안 홀 운영
을 못했어요. 개인 카페로써는 엄
청난 타격이었죠.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태원 경리단길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온 경험이 있었기에
공릉으로 이사하고 난 후 코로나
19를 견디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
겠지'하고 기다렸죠. 경험이 중요
하더군요.

**대표님은 요리를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웠다기
보다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자주
혼자서 연구하고 연습했어요. 지
금 요리들은 결과적으로 제 입맛
에 맞춰진 건데 손님들이 그걸 좋
아해 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반갑기
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손님들
이 저랑 취향이 같은가 봐요.

**자주 산책하는 장소가 있으면 소
개해 주세요.**

친구들이 동네에 놀러 오면 공릉
숲길로 데리고 가요. 공릉 숲길에
는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예쁜 카
페, 식당이 모여 있어서 친구들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요. 아기자
기한 모습이 좋아서 자주 산책하
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
시다면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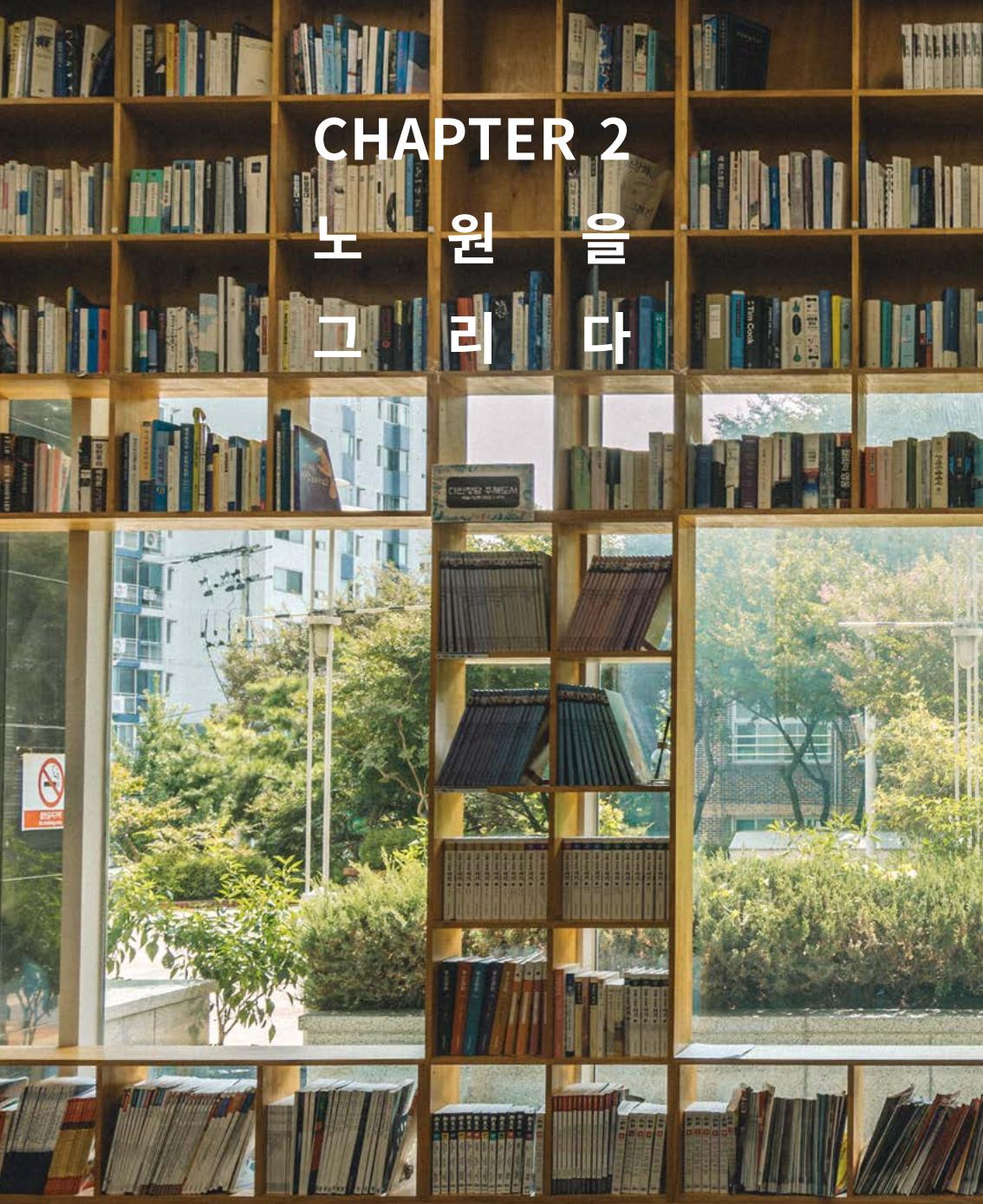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 있
다면 확장이겠죠? 제가 크게 도전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만
약에 확장해서 오픈하게 되더라도
공릉동 안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 예전에 기찻길이 있던 곳에 경춘선
공릉숲길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잘 가꾸어져 있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



CHAPTER 2

노원을 그리다



노원의 삶에 한걸음 다가가 본다. 길가에서 무심코 마주한
웅장한 산세에 흠칫 놀라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생각에
잠긴다. 이렇듯 산과 가까이 마주한 것이 얼마만이던가.
오늘은 도서관에나 들러볼까. 도서관은 어김없이 공원과
이어져 책으로 향했던 몸은 계획과 달리 나무숲을 향해
있다. 노원은 자꾸만 예상치 않은 곳으로 나를 이끈다.



노원의
자연을
그리다



숲은 멀지 않았다. 손 뻗으면
닿는 그곳에 노원의 자연이
살아 숨 쉰다. 도시 어디서나
마주하는 산과 강은 선뜻
쉬어갈 자리를 내어 준다.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으로 둘러싸인 노원은 시선이 머무는 곳 어디든 숲으로 가득하다. 4개의 산은 보다 가까이, 즐거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힐링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낭만 가득한 경춘선 숲길, 내 집 정원과도 같은 도심 공원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초록의 정원은 충분히 가깝다.



1. 초록의 정원, 힐링타운

불암산 힐링타운

거대한 바위산의 웅장함이 멋스러운 불암산은 노원구 상계동·중계동과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에 위치한다. 508m 높이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거대한 암벽과 울창한 숲이 절경을 이룬다. 바위산의 모습이 부처님과 닮아 불암산(佛岩山)으로 불린다. 정상에는 불암산 성 터가 남아 있고, 바위산의 위용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영신바위와 학이 찾아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만큼이나 풍광이 아름다운 학도암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위치하고 있다.

불암산 그늘 아래, 몸과 마음의 쉼터 불암산 힐링타운이 조성되어 보다 가깝고 편안하게 불암산을 느낄 수 있다. 수줍은 연분홍 꽃밭 철쭉동산, 도심에서 즐기는 나비정원, 온실카페가 함께 운영되는 정원지원센터, 자연에서 마음을 들보는 산림치유센터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유아숲 체험장과 책쉼터, 피크닉장까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에 빛나는 불암산 힐링타운을 즐기기엔 하루가 부족하다.

Ⓐ 중계동 산42-3 일대

GARDEN

철쭉동산

불암산의 4월은 핑크빛으로 물든다. 약 10만 주의 철쭉이 피어나 장관을 이루며 이 즈음 '불암산 철쭉제'도 개최되어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곁들여진다. 드넓게 펼쳐진 연분홍 꽃밭과 싱그러운 초록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다.

Ⓐ 중계동 산45



GARDEN

나비정원

나비정원에서는 봄을 알리는 나비를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다. 불암산 나비정원은 들어서는 입구 천장에 설치된 대형 모빌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2층 곤충학습관에서 나비 생육 과정을 관찰한 후, 1층 나비온실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어진다.

Ⓐ 한글비석로12길 51-27

Ⓐ 10:00-18:00(월요일 휴관), 동절기(11월-2월) 10:00-17:00(월요일 휴관)

Ⓣ 02-2116-0558





CENTER

산림치유센터

산림치유란 숲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불암산의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불암산 산림치유센터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흔치 않은 도심형 산림치유센터로 국가자격을 보유한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힐링과 자기 돌봄을 돋는다. 숲과 함께하는 각종 정규 프로그램, 연령과 건강상태에 맞춰진 맞춤형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 한글비석로12길 51-49

④ 10:00-16:00(월요일 휴무)

⑤ 02-2116-0538~9



CENTER

노원정원지원센터 & 카페 4rest(포레스트)

홈가드닝 샵, 반려식물병원, 가든라이브러리 등 가정에서도 손쉽게 정원을 가꾸고 반려식물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암산의 4가지 쉼(꽃, 나비, 차, 숲)을 즐긴다는 의미를 가진 카페 4rest에서는 계절마다 색색을 달리하는 불암산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 한글비석로12길 51-49 ④ 10:00-19:00(월요일 휴무),

동절기(11월~2월) 10:00-18:00(월요일 휴무)

⑤ 02-2116-0598





CENTER

유아숲체험장

그물 오르기, 통나무 터널 등 3,500m² 규모의 체험장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 숲지도사가 아이들의 체험을 돋는다.

④ 한글비석로12길 51-80



PICNIC

불암산 피크닉장

2,500m²의 규모로 조성된 숲 속 야외 피크닉장에는 5동의 인디언 텐트, 14개의 나무 평상, 8개의 야외 테이블, 1동의 카라반 등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불암산을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이 함께 하고 있어 휴식과 힐링, 낭만을 선물한다.

Ⓐ 중계동 산101-6

④ 10:00-19:00(월요일 휴관),

동절기(11월-2월) 10:00-16:00(월요일 휴관)



LIBRARY

책쉼터 '방긋'

유아숲체험장 내에 작은 도서관, 책쉼터 '방긋'이 위치하고 있다. 숲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잠시 들러 책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테라스에는 색색의 빈백 의자에서 푸른 잔디를 바라보며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부는 매트가 깔려 있어 편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다.

Ⓐ 한글비석로12길 51-80

한국의 자연을 그린다

59



OBSERVATORY

불암산 전망대

양옆으로는 유려한 곡선의 계단이 위치하고 중앙에는 엘리베이터로 전망대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게 조성하며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0m의 전망대에 오르면 불암산 암벽 바위가 한눈에 들어오고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중계동 산95-1



경춘선 힐링타운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 옛 화랑대역 주변 버려진 철로가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예술을 감상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의해 운행이 중단된 후 폐역으로 방치되었던 화랑대역이 갤러리, 도서관, 카페, 공원으로 새단장하면서 경춘선 힐링타운은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협궤열차, 미카 증기기관차, 황실전차, 그리고 체코 프라하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들여온 노면전차 등 다양한 열차들이 폐노선 위에 새로운 등지를 틀었고 밤이면 불빛정원으로 변신하여 광장 전체가 빛의 향연으로 물든다.

Ⓐ 공릉동 29-61외





VILLAGE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

알프스 마티호른산 모형을 중심으로 응프라우와 몽블랑 산맥이 펼쳐져 있다. 실물 크기의 1/87로 축소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17대의 기차가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유명 관광지를 재연한 50여 개의 디오라마 사이를 쉬지 않고 달린다. 산사태가 나서 산 중턱 나무들이 흔들리고 구조헬기 출동! 스키를 타는 사람들 위로 케이블카가 오가고, 베른 국회의 사당 건물 앞으로 자전거들이 지나간다. 10분이 지나자 전체 조명이 어두워지며 스위스의 야경을 만나게 된다. 노원기차마을은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곳이다. 제1관인 스위스관에 이어, 곧 이탈리아관도 만날 수 있다. 눈을 반짝거리며 웃음을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화랑로 622(철도공원 내 서울여자대학교 맞은편)

④ 10:00-19:00(월요일 휴관)

⑤ 02-723-7793

CAFE

Cafe 기차가 있는 풍경

페선된 경춘선 철로와 옛 화랑대역사를 배경으로 조성된 경춘선 힐링타운 내에 자리잡은 카페답게, 기차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이다.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면 실물을 그대로 본뜬 미니기차가 음료를 싣고 온다. 시원하게 천장을 내달리는 꼬마기차와 20분마다 발사되는 우주선, 미니기차 전시장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거리도 또다른 재미다. 그러나 카페라면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할 터. 스페셜티커피 확산에 기여한 전문가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나라별, 산지별 커피의 특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싱글オリジ진 커피만을 판매한다.

Ⓐ 화랑로 608

④ 11:00-21:00(월요일 휴무) ⑤ 0507-1329-4399



LIBRARY

트램도서관

체코의 폐열차는 인스타 감성을 자극하는 레트로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되었다. 체코 프라하의 풍경을 품고 달렸을 이 열차는 아이들의 도서관이 되어 고사리 손이 책장을 넘기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화랑로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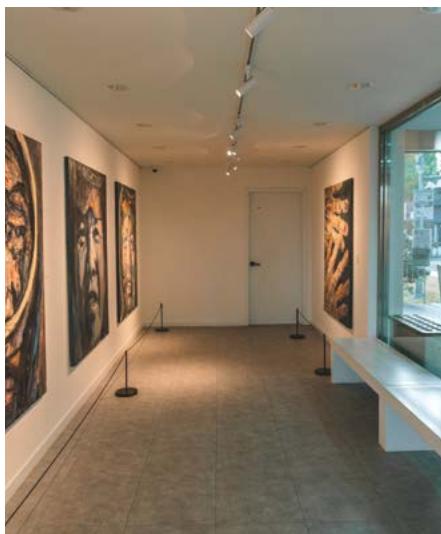


GALLERY

경춘선숲길 갤러리

자재 창고로 쓰이던 4개의 컨테이너가 국내외 유명 작가의 전시장으로 재탄생했다. 체험공간과 야외 휴게 마당을 갖추어 주민이 더 가까이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즈넉한 숲길 풍경과 오래된 철길의 아날로그 감성을 즐기며 산책과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 공릉동 29-1



MUSEUM

화랑대역사관(구 화랑대역사)

등록문화재 300호로 지정된 구 화랑대역사가 화랑대 역사관으로 틸바꿈했다. 대합실과 역무실, 숙직실 공간을 역사관으로 꾸미고 경춘선의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과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70~80년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곳이다.

Ⓐ 공릉동 29-61 Ⓛ 070-4179-3777





GARDEN

노원불빛정원

화랑대역이 폐역이 되면서 쓰임을 다한 경춘선 철길은 낮에는 숲과 철길이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으로, 밤에는 도시를 밝히는 불빛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비밀의 정원, 불빛 터널, 음악의 정원, 하늘빛 정원, 은하수 정원 등 총 10개 코스의 불빛 조형물이 불을 밝히는 서울시 최초의 불빛정원이다. 경춘선 숲길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한다.

Ⓐ 화랑로 610(육군사관학교 정문)



SCULPTURE

아바타트리

불빛정원 내에 위치한 아바타트리는 높이 7m, 너비 10m의 대형 꽃나무 조형물이다. 무려 1,500개의 화분으로 만들어 낸 조형물이며 그 아래에는 꽃화단을 조성했다. 40개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밤이면 더욱 빛을 발한다.

Ⓐ 화랑로 608



초안산 힐링타운

도봉산 산맥이 남으로 이어져 형성된 114m의 작은 산봉우리인 초안산은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낮은 산이지만 우거진 숲을 자랑하고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친근한 산으로 동으로는 중랑천, 서로는 우이천이 흐른다. 조선시대에 남겨진 분묘군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도 높다. 그간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무질서하게 훼손되어 있던 공간을 되살려 시민들의 힐링 공간인 '초안산 힐링타운'으로 조성하였다. 산림 훼손지를 수국동산으로, 쓰레기가 쌓여가던 공원을 아름다운 도시정원으로 되살린 노력을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수상하였다.

Ⓐ 월계동 산46-3번지 일대



GARDEN

초안산 수국동산

초안산 자락의 삼림 훼손지 약 1만 8,590㎡에 19종 1만 1,000주의 수국을 심어 도심 속 꽃 정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자연형 계류와 폭포, 생태 연못을 더해 자연 정원의 느낌을 살렸다. 연못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크길을 따라 꽃 길이 펼쳐지고, 쉬어갈 수 있는 나무 벤치에는 아기자기한 동화속 풍경이 이어진다.

Ⓐ 월계동 산46-3번지 일대

PROMENADE

순환산책로

초안산에도 무장애 순환산책로가 조성되고 있다. 1차 구간은 성원교회 뒤에서 스파크골프장 뒤까지, 2차 구간은 스파크골프장 뒤에서 월계역까지로 구간별 순차 조성 중이다. 산책로 전 구간을 경사도 8% 이하의 완만한 목재 데크길로 조성해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초안산의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월계동 산84-8번지 일대
(성원교회 뒤~스파크골프장 뒤~월계역)



GARDEN

비석골 균린공원

초안산에는 조선시대 분묘군 1,000여 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조형물들을 정리하고 주변의 꽃과 나무도 새로이 다듬고 각종 운동시설과 산책로도 새단장하였다. 이 공원은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수정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마을 정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광장을 새로 설치하는 등 친근한 시민들의 놀이터가 되어 돌아왔다.

Ⓐ 초안산로5길 74

PICNIC

초안산 피크닉장

초안산 수국동산 가장 윗부분에 숲속 힐링 피크닉장이 조성되어 있다. 울창한 나무숲 아래에는 원형 평상, 세족장이 갖춰진 맨발걷기 황톳길, 아이들을 위한 통나무 놀이터, 각종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순환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비석골 균린공원으로 이어진다.

Ⓐ 월계동 산46-3 일대





수락산 힐링타운

수락산은 노원구 상계동과 남양주시, 의정부시에 면해 있는 높이 638m의 산으로 노원에 위치한 산 중에서 가장 높다. 수락(水落)이라는 이름은 바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양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실제로 수락산역에서 등반을 시작하면 마주하게 되는 벽운 계곡은, 물의 양이 많아 수락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산세를 보여준다. 계곡 주변에는 휴식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암반까지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과 함께 서울 근교 4대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수락산 힐링타운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휴양림인 수락산 등막골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벽운 계곡과 무장애 순환산책로, 유아숲체험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락산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 상계동



PROMENADE

순환산책로

나무 데크로 이루어진 수락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수락산 입구인 노원골에서부터 상원종학교를 거쳐 상계주공14단지, 한옥어린이집에 이르는 구간이다.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 임산부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락산을 즐길 수 있다. 산책로가 시작되는 노원골에서는 천상병시인길, 디자인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도 풍부하다.

Ⓐ 상계동 산59번지 일대(노원골~한옥어린이집)

FOREST

수락 休(휴) 자연휴양림

수락산 울창한 숲속에 5성급 호텔 수준의 객실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이 탄생했다. 상계동 산155-1번지 일대 동막골로 불리는 수락산 아득한 산자락에 전체 규모 9,800m², 총 18개동 25실 최대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었다. 10m 높이의 트리하우스에서는 숲과 함께 밤하늘을 즐길 수 있고, 숲속의 집과 레스토랑, 카페, 불멍존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생분해 용기에 담긴 생수를 사용하고, 냉난방의 보조에너지로 지열을 이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에코형 휴양림을 지향하고 있다.

(2025. 5월 개관)

Ⓐ 상계동 산155-1 일대(동막골)



VALLEY

벽운계곡

암벽이 많은 수락산 곳곳에 하얗게 드러난 바위가 마치 흰 구름이 머무는 것과 같다고 하여 벽운동천(壁雲洞天)이라 바위에 새겨진 것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이름대로, 하얗게 드러난 바위가 마치 흰 구름이 머무는 것 같은 수락산 산세 안에 내려앉은 계곡이다. 수변데크와 쉼터, 휴게공간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숲 속 그늘 아래 물놀이와 피크닉을 즐기기 그만이다.

Ⓐ 삼계동 산1-2번지(수락산 별운계곡 일대)



CENTER

유아숲체험장

수락산 자락에 13,000㎡ 규모의 유아숲체험장이 자리하고 있다. 아이들의 자연체험과 숲교육이 가능한 통나무 놀이터, 계곡 물놀이장, 화원, 나무가지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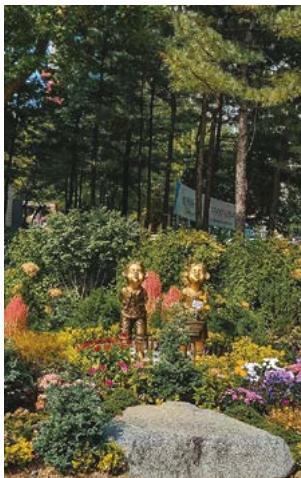
Ⓐ 덕릉로145길 105





내집앞 가까이 펼쳐진 공원

후가든



노원에 센트럴파크가 탄생했다. 왕복 6차선 도로로 분리된 중계근린 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을 친환경 녹지연결로를 잇고 사계절을 느끼는 공중정원을 만들어 하나의 공원처럼 이용하게 만들었다. 약 6만m²에 달하는 넓은 공원과 함께 노원구민의 전당, 천문우주과학관, 북서울미술관 등의 문화와 예술, 교육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져 노원을 대표하는 도심형 복합 힐링타운으로 새단장하였다.

그 외에도 노원은 규모가 큰 근린공원부터 다소 작은 규모의 어린이공원-소공원까지 총 129개의 공원을 품고 있다. 숫자만으로도 노원의 곳곳이 얼마나 많은 푸릇한 여유를 제공하고 있는지 짐작된다. 또한 기존의 노후 공원은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 중이며, 이러한 세심한 관리와 리모델링은 집 앞 작은 공원에까지 그 손길이 닿아 있다. 특히 16개 공원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로 꾸민 '휴가든'이 조성되어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정원사들이,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원의 유휴공간을 내 집 정원처럼 조성하고 관리하며 정원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영축산 힐링타운

영축산은 높이 93.4m의 야트막한 산이다. 산 정상 까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순환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정상에서 불암산, 수락산과 노원시내를 관망 할 수 있다.

Ⓐ 월계동 산130번지 일대

PROMENADE

순환산책로

총 길이 3.39km의 순환산책로는 우이천 옆 SK 뷰아파트에서 산 정상을 넘어 광명교회까지 1.85km의 제1구간, 광운대역에서 산 정상을 거쳐 월계문화체육센터까지 1.54km의 제2구간으로 나뉜다. 순환산책로는 무장애 나무데크길이며 누구나 안전하게 산에 오를 수 있다. 정상에는 아담한 전망공간이 있어 땀을 식히며 노원 일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월계동 산130번지



2. 도심 속 휴식, 강을 노래하라

노원에는 남북을 흐르는 대표 하천인 중랑천을 중심으로 지류인 당현천, 우이천, 목동천 총 4개의 강이 흐른다. 산이 역동적인 느낌표라면 강은 쉼표다. 우리의 삶은 강과 함께 빠르게 변화해왔지만, 지금 우리는 강에서 쉬어갈 결심을 한다.



중랑천

노원의 대표 하천이다. 경기도 양주시 불국산에서 발원하여 34.6km를 흐르는데, 노원구에서는 지류인 당현천·우이천·목동천의 물을 모아 한강으로 운반한다. 옛날 상계동 부근에서는 샛강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1950년대까지 여름에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랑받다가 도시화로 오염됐으나 다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다. 그 중심 역할을 한 '중랑천환경센터'에서 다양한 시민 생태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계절 따라 양귀비와 갈대숲이 넘치고 힐링꽃밭, 초화원, 활터길과 함께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 운동과 산책, 힐링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중랑천과 당현천 합류부에 조성된 노원두물마루에서는 중랑천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잔, 보글보글 한강라면을 즐길 수 있다.

Ⓐ 상계동~월계·공릉동

당현천

상계동 수락산에서 발원하여 중계동을 지나 5.8km를 흘러 중랑천에 유입된다. 강 이름은 미륵당이 있는 당고개(한자표기: 堂峴) 마을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중랑천의 가장 위쪽을 상계동, 중간을 중계동, 아래쪽을 하계동이라고 하는데, 당현천이 그 자연경계 역할을 한다. 도시화 속에서 인공하천으로 변형됐으나,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꽃길과 정원, 음악분수가 유명하며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수상했다. 봄에는 ‘벚꽃음악회’, 가을에는 빛의 축제인 ‘달빛산책’이 개최된다.

Ⓐ 중계동



우이천

도봉산 우이령에서 발원하여 8.5km를 흐른다. 중랑천 지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강 이름은 발원지인 우이령(牛耳嶺) 봉우리가 소의 귀와 닮았다는 데에서 유래하며, ‘소귀내’라고도 불렸다. 도시개발로 메마른 건천이 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생태하천으로 재생되어 물고기와 왜가리, 청둥오리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운동, 산책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린다. 특히 우이천은 예쁜 화단뿐만 아니라, 서울의 숨겨진 벚꽃 명소로 봄철에는 상춘객으로 붐빈다.

Ⓐ 월계동



목동천

목동천(墨洞川)은 종량구 신내동과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에서 발원하여 목동IC 부근에서 중랑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4.7km의 아담한 도시하천이다. 육군사관학교 부근에서는 태릉천(泰陵川) 혹은 화랑천(花郎川)으로 불리기도 한다. 목동천 역시 한때 오염되었으나 다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사계절 맑은 물과 다양한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다. 문화공연 무대, 화단, 산책로를 따라 수변 경관을 즐기다가 인근의 경춘선 숲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도 좋다.

Ⓐ 공릉동



노원의
공간을
그리다





공간은 사람에 의해 완성되며
그들 일상의 기록이다.
노원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까.



호기심이 자라는 도시, 배움이 일상이 되는 곳,
아이와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노원을 들여다본다.

1. 배움이 머무는 곳, 노원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상상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호기심 여행.
천문·우주 특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 생명과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다. 빅뱅에서 현재에 이르는 우주와 지구, 생명 진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빅히스토리관'에서는 우주 시간 여행을 즐긴다.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코스모스관'에서 우주 공간 여행도 가능하다. '서울시민천문대'에서 별과 행성, 달의 천체 관측이 가능하고, 하늘에 수놓인 계절별 별자리 찾아 여행을 떠나는 천체영화 상영관 '천체투영실'까지. 별자리를 통해 우주와 친숙해지는 방법을 배운다.

Ⓐ 동일로205길 13 Ⓣ 09:30-17:30(12:00-13:00 휴게시간, 월요일 휴관)
Ⓣ 02-971-6232 Ⓣ nowoncosmos.or.kr

노원수학문화관

전국 최초의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한 수학문화 콘텐츠 전문관이다. 수학을 처음 접하는 유아들이 수학적 감각을 키우는 공간, 수학으로 오르는 암벽을 통해 온몸으로 수학을 느끼는 공간, 자연 속에서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겨진 수학을 체험하며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만날 수 있다.

Ⓐ 한글비석로 19길 28 Ⓣ 10:00-17:30(월요일 휴관)

⑩ 02-2116-2181



상상이룸센터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공간이다. 디지털 스튜디오 등 체험 교육과 함께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놓았다. 입구는 오픈형 아지트로 아이들이 부담없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라운지 카페 형식으로 만드는 등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다.

Ⓐ 노해로 502 KT 노원지사 신관 4층

74 Ⓣ 월~금요일 10:00-19:00, 토요일 10:00-17:00
(12:00-13:00 휴게시간, 일요일 휴관) Ⓣ 02-936-3326



노원 청소년 미래진로센터 앤드

VR, AR, 3D 스캐닝, 디지털 드로잉 등 수많은 4차 산업 분야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아직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앤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무궁무진한 4차 산업의 세계로 초대한다.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 4차 산업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라면 필수 방문 코스로 추천한다.

Ⓐ 노원로 16길 16

Ⓣ 월, 토요일 09:00-18:00, 화~금요일 09:00-20:00
(12:00-13:00 휴게시간, 일요일 휴관) Ⓣ 02-949-7766 Ⓣ andyouth.or.kr





노원중앙도서관



초안산숲속작은도서관



월계도서관

걸어서 10분, 노원의 도서관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연간 독서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집 앞 가까운 곳에,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도서관이 있다면 어떨까? 독서와 학습이 일상화되며 문화와 여가, 교류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도서관과 함께 삶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 8개의 공공도서관과 25개의 작은 도서관을 갖춘 노원구는 권역별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허브로써의 노원의 도서관은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원에코센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육시설답게 건물 자체도 탄소제로 하우스로 지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생산하여 자급하고 있어 에너지 환경 교육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건물 밖에는 생태텃밭과 기후변화 체험장이 있어 다양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다.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탄소 흡수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시농업 등 친환경 생활을 돋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 중이다.

- ⑧ 덕릉로 460 ⑨ 10:00-17:00(주말, 월요일 휴관)
⑩ 02-3392-4910 ⑪ nwecocenter.or.kr





중랑천 환경센터

중랑천의 하천 생태계를 지키고, 지역 주민에게 소중한 물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 유일의 하천 환경센터이다. 과거 오염되었다가 생태적으로 복원된 과정을 알 수 있는 하천유역 체험존, 빗물을 재 활용해 수돗물 소비량을 줄이는 물절약 체험존 등 다양한 물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다. ‘물 사랑 환경 교실’, ‘수생태 체험교실’, ‘위기 동물이 살아있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은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다.

④ 덕릉로 430 ④ 10:00-17:00(일·월요일 휴관)

⑤ 02-938-9520 ⑥ jrecocenter.or.kr



서울시립과학관

머리로만 하는 과학이 아닌,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며 ‘실제로 과학을 하는’ 과학관이다. 각각의 전시실은 별과 우주, 생태환경과 도시, 인간 생명과 생활 속의 과학, 일상 속 과학원리 등 다양한 테마로 조성되어, 풍부한 디오라마와 영상, 체험형 장비를 갖추고 있다.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과학을 신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돋는다.

④ 한글비석로 160 ④ 09:30-17:30(월요일 휴관)

⑤ 02-970-4500

육군박물관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군사 전문박물관. 1956년에 우리나라 군사 유물을 수집 전시하여 국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립한 가장 오래된 군사박물관이다. 1983년에 새로이 지어진 현재의 건물은 현대건축의 거장 김종업 건축가가 설계하였다. 보물 5종 7점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23종 75점 등 육군 관련 유물 14,000여 점을 보유 중이다.

④ 화랑로 574

④ 10:00-17:00(월요일 휴관,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

⑤ museum.kma.ac.kr





2.

노원을 브랜딩하다, 복합문화공간

노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숲과 함께 하는 열린공간’이라는 표현은 어떨까. 문턱이 낮은 행정,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노원의 브랜딩을 이야기한다.

노원책상

여기가 구청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 되물어볼 만하다. 노원구청 1층 로비는 ‘노원책상’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었다. 주민들이 오고가는 이동 통로에 불과한 일반적인 구청 1층과는 달리, 바쁜 일상 속 잠시 여유를 가지고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누구나 이 공간에서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눌 수 있으며, 차를 마시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민원실이 아닐까. ‘노원책상’은 「2023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⑧ 노해로 437 노원구청 1층 ⑨ 09:00-18:00



노원 마을커뮤니티

이웃과의 상호교류도, 유대감도 사라져버린 요즘이라고 하지만, 행복한 마을에서 살고 싶은 소망은 모두의 가슴 한 켠에 담겨져 있다.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다. 이러한 참여와 관심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노원은 주민들을 위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현재 18개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 중이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곳이 노원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다.





중계온마을센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딱 어울리는 공간이다. 중계온마을센터에서라면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친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다. 1층에서 4층까지의 건물이 가동, 나동으로 나누어져 층별로 이어져 있다. 각 층별로 육아와 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청소년의 건강한 휴식과 성장을 돋는 공간, 어르신들의 일자리부터 취미와 문화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한글비석로 371

Ⓑ 작은도서관 월-금요일 09:00-18:00(토, 일요일 휴관)

주민서방방(중계어울마루) 10:00-17:00,

토요일 11:00-15:00(일요일 휴관)



하계어울림센터

하계어울림센터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활동하며 배우고 어울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영유아의 놀이공간이자 부모들의 소통공간인 공동육아방과 북카페, 책과 어울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어린이 도서관, 노원의 초등돌봄 브랜드인 아이 휴센터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스포츠센터 등으로 꾸며져 있다. 여러 세대가 한 공간 안에서 소통하며, 센터 이름처럼 어울림의 향기를 동네에 전하고 있다.

Ⓐ 풍물로62길 18 Ⓡ 어린이도서관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일요일 휴관),

어르신스포츠센터 월-금요일 09:00-18:00(토-일요일 휴관)



더숲

더숲은 우리가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고소한 커피를 마시고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책을 고르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을 둘러본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영화가 상영되고, 사람들과 영화와 책을 이야기하고, 낭독회와 전시회가 개최된다. 더숲은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컬처 멀티플렉스다.

Ⓐ 노해로 480 조광빌딩 지하1-2층 Ⓡ 10:00-22:00

Ⓣ 0507-1383-0231 ⓑ @deosup_official



3. 노원, 예술 위를 걷다

노원의 일상에는 예술이 가득하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의 열린 공간을 들여다 본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명한 클래식 공연이나 세계적 화가들의 미술 전시를 서울 도심이나 강남까지 가지 않고 노원에서 만나볼 수는 없을까? 노원의 대표적 문화거점으로 2004년 개관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내부 설비를 새롭게 갖추고 2025년 1월 새롭게 문을 연 이유이다. 대공연장(은행나무홀)은 첨단 음향 및 조명 시설을 구비하고 관람 편의성을 강화해 550석의 객석을 갖췄다. 4층의 기존 전시실은 공립미술관 등록 기준에 맞춰 설비를 갖추고 노원아트뮤지엄으로 조성했다.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현대 추상표현주의 대표작가들의 전시 등이 이뤄진 만큼,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다양하게 펼쳐져 노원 문화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

Ⓐ 중계로 181 ⓒ 09:00-18:00(*공연, 전시에 따라 운영일, 운영시간 다름)

Ⓣ 02-2289-3425 Ⓣ nowonarts.kr

3. 노원, 예술 위를 걷다

노원어린이극장

2020년에 개관한 서울 동북권 최초의 어린이 전용 극장.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특히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과후 공연놀이터’는 방과후 학원이 아닌 극장에서 문화예술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노래나 춤을 배워 실제로 뮤지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노해로 502 B1 Ⓣ 09:00-22:00(월요일 휴관)
⑤ 02-2289-3453



노원어린이극장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미술과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북서울미술관은 공원 산책로를 미술관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락산, 불암산 등 노원의 주변 산들을 연상시키는 뒷동산을 닮은 미술관. 아이들이 놀이하듯, 어른이 산책하듯 생활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특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전시가 많아 가족 단위로 찾기 좋은 미술관이다.

Ⓐ 동일로 1238 Ⓣ 평일 10:00-20:00, 주말·공휴일 10:00-19:00(3월~10월), 10:00-18:00(11월~2월), (월요일 휴관)
⑤ 02-2124-5201 Ⓢ sema.seoul.go.kr

상계예술마당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활발한 예술활동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 지역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 상계예술마당은 규모는 작지만 의미깊게 자리하고 있다. 노원 문화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는 상계예술마당에서 다양한 분야의 작품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나보는건 어떨까?

Ⓐ 상계로10길 41-7 Ⓣ 10:00-18:00(12:00-13:00 휴게시간, 일,월요일 휴무)
⑤ 02-2289-3408



상계예술마당

경춘선숲길 갤러리

오래된 철길의 정취를 느끼며 경춘선숲길을 걷다 보면 화랑대 철도공원 안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경춘선숲길 갤러리를 만나게 된다. 산책로 옆 경춘선숲길 갤러리는 큰 화랑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선보이며, 일상 속에서 문화의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 Ⓐ 공릉동 29-4
- Ⓑ 화-금요일 14:00-20:00,
- 토-일요일 12:00-20:00(월요일 휴관)
- ① 02-2289-3490



문화공간 정담

자전거 대여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예술인과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겸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다. 기획전시와 소규모 공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공간 정담이 생기면서 주변도 정담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공원 입구에는 색색의 꽃 화단을 조성하고, 공원 중앙부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시설, 어른들을 위한 생활운동 기구, 파라솔과 쉼터도 마련되며 남녀노소가 모이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 Ⓐ 종계로 169 1층
- Ⓑ 10:00-22:00(12:00-13:00 휴게시간, 일,월요일 휴관)
- ① 02-2289-3468 ① @nowon_jungdam



© 문화살롱 5120

문화살롱 5120

경춘선 숲길에 위치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 '경춘선힐링쉼터'와 함께 '문화살롱 5120'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 창작자들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해 만든 청년 공간으로, 라운지, 전시공간, 미디어 아트실 등으로 구성되어 각종 전시와 워크숍, 강연과 소모임 등이 열린다.

- Ⓐ 공릉로51길 20
- Ⓑ 10:00-19:00(12:00-13:00 휴게시간, 일,월요일 휴관) ① 02-948-1217
- ① @salon_5120



82

4. 경험 한 줌, 추억 한 페이지

배움은 즐겁게, 액티비티는 화끈하게!
원데이 클래스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함께 하고,
자연 속에서 모험을 즐긴다.
오늘도 추억 한 페이지를 남긴다.

노원 X-TOP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동북권 최초의 X-게임장이다. 청소년 아지트, 농구장, 풋살장 등을 갖춘, 그야말로 다양한 도전을 통해 성장 중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스트리트·트랜지션·보울 등의 다양한 섹션으로 X-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교육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넘어져보고 다시 일어나도 보며 도전과 성장의 짜릿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⑧ 노원로22길 1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조물락 조물락. 어린이들의 자그만 고사리손도, 어른들의 투박한 손도 흙을 직접 만지며 나만의 멋진 그릇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가족, 친구와 함께 손으로 흙을 주무르고 빛다보면, 흙이 주는 안정감이 마음에 한 칸의 여유를 불러온다. 이렇게 빛어낸 나만의 작품은 체험장에 갖추어진 전용 가마실에서 1,000°C가 넘는 열을 견디고 구워져 한 달여의 기다림으로 받게 된다. 정기체험 뿐 아니라 일일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체험장 주변에는 잔디광장, 산책로, 과학놀이터가 있는 아담한 공원도 있으니, 추억 한 페이지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 덕릉로60타길 33 (H) 10:00-18:00(월요일 휴관)
⑤ 02-3297-3953 Ⓛ nowonsc.moonhwain.kr:447



목공예 체험장

나무의 질감과 향을 느끼며 자연과 가까워져 볼 수 있는 곳, 목공예 체험장이다. 원목의자, 테이블, 책꽂이, 독서대 등 품목별로 재단된 나무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다. 나무를 손으로 만지고 직접 못과 망치질을 하다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다. 작품이 완성되면 인ду로 내가 좋아하는 문구나 이니셜, 그림 등을 새기며 화룡점정, 나만의 작품이 된다. 이런 좋은 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되어 4개소가 있다니, 지금 바로 예약해 보자.

공릉 목공예체험장

Ⓐ 화랑로 606
⑤ 02-977-4816

불암산 목공예체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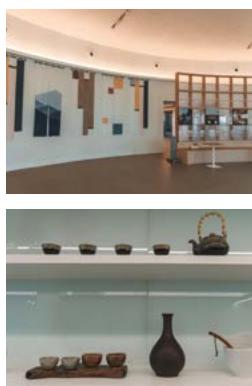
Ⓐ 한글비석로 180
⑤ 02-976-1690

수락산 목공예체험장

Ⓐ 상계동 132-3
⑤ 02-937-8793

상계 목공예체험장

Ⓐ 동일로237길 91
⑤ 02-939-8641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茶緩齋)

다완재는 느림의 미학을 차와 함께 논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위치한 다완재는 다례실, 예절실, 조리체험실, 놀이마당으로 꾸며져 있고, 전통떡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전통놀이, 어린이 다도 예절교육과 같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떡,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불암산의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 중계로 181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⑤ 09:00-17:00 (토-일요일 휴관)
⑤ 0507-1373-2474

불암산 더불어숲

도전과 성취! 용기와 모험정신! 팀워크와 협동심! 더불어숲에서 자연 속 모험을 즐기다보면 자연스레 단어의 의미들이 몸에 하나 둘 새겨진다. 실전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최첨단 서바이벌 게임부터 공중에 설치된 목재 장애물을 건너고, 서울 유일의 짚라인과 오감을 이용해 암흑미로를 헤쳐 나가다보면 서울 도심 안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잊는다. 공중으로 설치된 네트 위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하늘네트도 있으니, 청소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추천한다.

Ⓐ 한글비석로4길 93-40

Ⓑ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 일요일 휴무)

① 0507-1398-6867



초안산 캠핑장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캠핑장이 노원에 있다. 교통체증 없이 집 근처에서 안락한 자연을 느끼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장점이다. 초안산 숲속에 자리잡은 24,983㎡ 규모의 캠핑장에는 다양한 캠핑존이 구성되어 있다. 경사면을 활용한 테라스형 '캠핑빌리지', 차 옆에 텐트를 칠 수 있는 '파크캠핑빌리지', 통나무집 '캐빈하우스'와 일반 텐트존인 '힐링 캠핑빌리지' 등 이용 수요에 따라 선택,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인기가 많은 곳이니 매달 9일 예약 전 손가락 운동은 필수다.

Ⓐ 미들로5가길 66-107 ① 02-2289-6865

② nowonsc.moonhwain.kr:447



계절 특화 액티비티

사계절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한 액티비티가 뭘까? 더운 여름에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추운 겨울에 즐기는 짜릿한 눈썰매가 아닐까 싶다. 노원에는 여름과 겨울철 한달여간 노원 워터파크와 씽씽 눈썰매장이 만들어진다. 임시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라고 얕诩서는 안된다. 여름의 워터파크는 100m 워터슬라이드를 내려오며 시원한 슬립을 만끽할 수 있고, 어린이풀과 성인풀 등도 나뉘어져 안전하고 재밌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겨울의 씽씽 눈썰매장은 90m의 나름 규모있는 슬로프와 아이스링크, 놀이동산, 빙어잡기 체험까지 갖추면서 어린이들의 신나는 겨울방학을 책임진다. 특별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전문적인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집 앞 액티비티! 노원은 꿀잼이다.



5. 도심 속 책의 향연, 동네책방

새로운 책과 다양한 생각을 만나는 문화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 동네책방. 노원산책에서 한 번쯤 들렸으면 하는 작고 소중한 동네책방을 모아 보았다.

지구불시착

책방지기의 감성이 가득한 공간, 지구불시착은 공릉 숲길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난 공릉동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 김택수 책방지기가 8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곳은 톡톡 튀는 감각적인 책들이 가득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인 책방지기의 그림이 공간을 채우고 있어 보물찾기 하듯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글 쓰는 '글이다클럽', 그림 그리는 '그림이다클럽', 낭독회, 독립출판 책만들기 워크숍, 인디자인 클래스. 그 외에도 재미있는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공릉로32길 13 Ⓣ 10:00-21:00 ① @illruwa2



브론테살롱

수락산 산책로 입구 천상병 공원 맞은 편 카페의 2층에 자리한 동네 책방 브론테살롱. 브론테 자매들의 작품을 좋아해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빨간콩', 성인 인문교양서와 실용서,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위한 책을 출간하는 '도트북', 그리고 아트북 중심의 출판사 '브론테살롱'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저자 강연 및 북토크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동일로242길 87 커피나무 2층 Ⓣ 10:30-19:00(일요일 휴무)
① 02-933-8051 ① @bronte_salon_book

책인감

경춘선 숲길에 자리한 동네책방&카페. ‘책인감’이라는 이름에는 책과 사람, 감성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책방지기의 꿈이 담겼다. 카페도 겸하고 있는 이곳은 숨어서 책 읽기 딱 좋은 공간이다.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는 무릎 담요를 덮은 사람들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다. 책과 커피와 차,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공간. 독서모임, 책쓰기 모임, 심야책방, 금요영화, 금요와인, 여행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동일로182길 63-1 2층 Ⓣ 13:00-21:00(일·월요일 휴무)

① 0507-1302-7286 ① @chaeingam



불암책방

‘책으로 우리 동네를 바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년 중계동에 문을 열었다. 이 슬로건에는 책 읽는 시민들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책방지기의 뜻이 담겨 있다. 불암책방에는 학생들의 참고서는 물론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지만, 특히 노원과 강북지역에 연관된 책, 지역 신진작거나 학생들이 쓴 책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책방 안에 세미나실이 있어 글 모임 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중계로 205 B1 Ⓣ 화~금요일 15:00-22:00, 토~일요일 10:00-19:00(월요일 휴무)

① 0507-1397-0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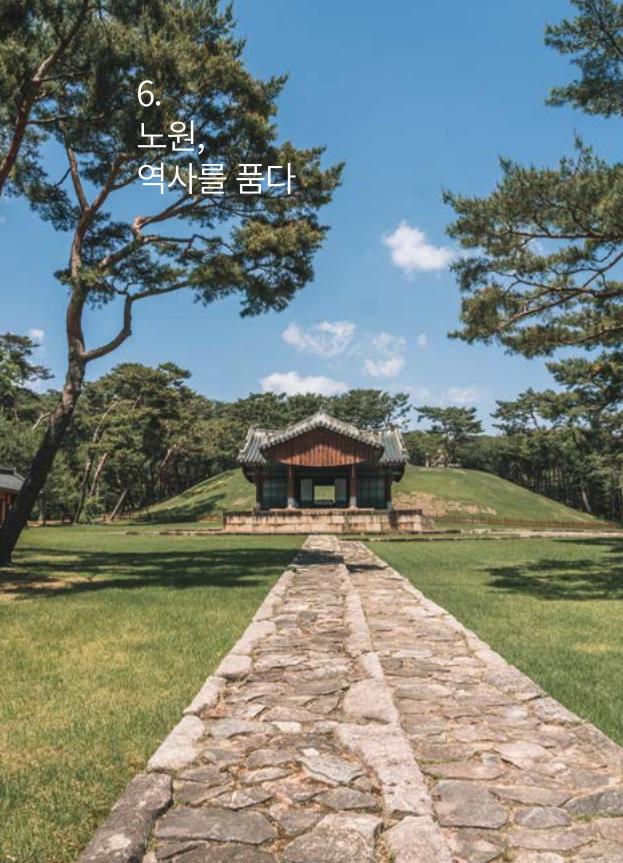
땡땡섬

지하철 석계역 1번 출구를 나와 고개를 들면 바로 땡땡섬이 보인다. 화려하지 않은 채도가 낮은 초록색 간판, 말간 통유리창 너머로 간결하게 정리된 책들이 보인다. 아니, 현책방이 이렇게 이쁠 일인가. 땡땡섬은 월계동 동네 현책방 1호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책방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다 읽은 책을 기증하면 땡땡섬 북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읽은 책을 내가 소개하는 공간, 땡땡섬은 모두가 책방지기가 되는 곳이다.

Ⓐ 화랑로 337-4 1층 Ⓣ 12:30-20:30(일요일 휴무, 평일 중 하루 휴무) ① 0507-1478-5262 ① @ooislards



6. 노원, 역사를 품다



서울 동북부에 자리한 노원은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속에 오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노원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

태릉·강릉

조선왕조는 왕릉 조성과 관리에 예와 정성을 다 하였다. 왕릉은 풍수에 따라 최고의 명당을 정하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지었다. 태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의 능이다. 문정왕후는 중종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였으나 명종은 지금의 자리를 어머니 문정왕후의 능으로 정하고 이름을 '태릉'이라 지었다. 이후 아들 명종이 사망하자 어머니의 능 가까운 곳에 강릉을 조성하고 이후 왕비 인순왕후의 능도 함께 두어, 강릉은 하나의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으로 정자각에서 바라보았 때 왼쪽이 명종, 오른쪽이 인순왕후의 능이다. 태릉과 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201호이다.

④ 화랑로 681 ② 2월~5월, 9월~10월 09:00~18:00,
6월~8월 09:00~18:30, 11월~1월 09:00~17:30, 월요일 휴관
⑤ 02-972-0370



화랑대역(폐역)

지금은 폐역이 된 화랑대역은 경춘선에 위치한 철도역이었다. 1939년 경춘선 개통 당시의 역명은 태릉역이었으나 1958년 인근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에 따라 화랑대역으로 변경되었다. 복선전철화로 폐역이 되기 전까지 무궁화호가 하루 총 7회 운행하였다. 역사는 단층의 목조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300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화랑대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화랑로 608 화랑대철도공원 내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본관과 교사 / 구 광산학과 교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본관(다산관)과 교사(창학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광산학과 교사(대륙관)는 1942년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근대 건축물로 한국 근대 교육 건축물의 중요한 유산이다. 특히 다산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에 8층 높이의 시계탑, 'ㅁ'자 형태의 중정을 갖춘 서양식 건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대륙관도 중앙의 높은 탑, 대칭형 건물 구조, 현관 등을 통해 권위를 드러낸다. 두 건물 모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⑧ 공릉로 232

이윤탁 한글영비

1536년 조선 중종 때 문인 이문건이 아버지 이윤탁과 어머니 고령신씨를 합장한 묘 앞에 세운 한글묘비이다. 묘비에는 묘역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계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비석은 신령한 비석이다. 이 비석을 훼손하는 사람은 재화를 입을 것이다. 이를 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리는 것이다'라고 한글로 새겼다. 1446년 훈민정음 창제 아래 한글로 쓰인 최초의 비석이라는 점에서 16세기 중세 한글 서체 연구와 국어학 학술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다.

⑧ 하계동 12

월계동 각심재(恪心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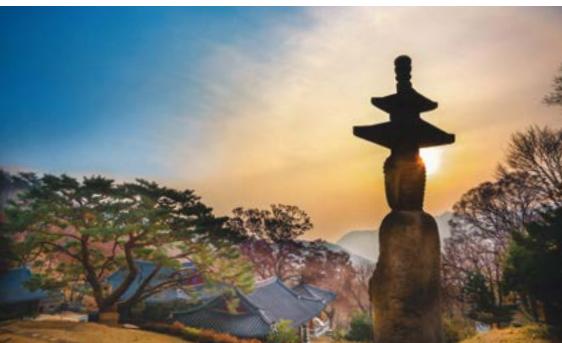
초안산의 고즈넉한 풍정에 둘러싸인 각심재는 '공경하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삼가는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인이씨 이조판서공파의 주택으로 1930년대 후반에 지어진 개양한옥이다. 한국 최초로 서구식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가 박길룡의 작품이다. 한옥에 현관을 만들고 화장실과 욕실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복도로 연결시킨 점 등 1930년대 후반 개양한옥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국 주택사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서울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⑧ 초안산로 7길 20



월계동 각심재(恪心齋)

학림사(鶴林寺)



671년(신라 문무왕 1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수락산 남쪽 산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학림(鶴林)’이란 이름은 절이 위치한 주위 산세가 마치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학포지란(鶴抱之卵)의 모습과 비슷한데서 유래했다. 소설과 중수를 반복하는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웅전에는 석가여래상과 탄생불, 약사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사여래상이 모셔져 있다.

Ⓐ 덕릉로129가길 241 ⑨ 02-916-1700



용굴암(龍窟庵)

수락산 정상 바로 아래, 남쪽 기슭 암벽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1878년 스님들이 이곳 자연동굴에 부처님과 16나한을 모시고 수행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대원군의 석정으로 권좌에서 밀려난 명성황후가 이곳에 피신하여 기도한 이후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공덕을 기리는 하사금을 내려 법당을 세우고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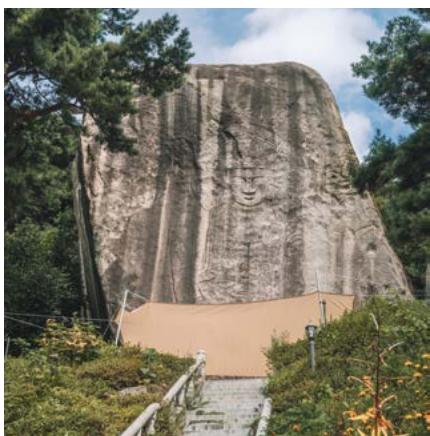
Ⓐ 덕릉로143길 43 ⑨ 02-937-8206



도안사(度岸寺)

수락산 자락에 자리한 도안사는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운 절이다. 조선 중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108평화보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은선묘아미타삼존도(銀線描阿彌陀三尊圖)’를 보유하고 있다.

Ⓐ 덕릉로145길 99 ⑨ 02-936-5936



학도암(鶴到庵)

불암산의 대표적인 사찰. 대웅전 뒤편의 암벽에 1872년에 조성된 높이 13.4m에 이르는 전국에서 가장 큰 마애선각관음보살좌상이 있다. 자연암벽을 깎아 만든 것인데 명성황후의 발원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학도암 경내 진입로 대형 암벽에 나란히 새겨진 마애사리탑 2점은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중계로14다길 89 ⑨ 02-930-6555

노원의 맛을 그리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하는 노포, 골목 어딘가 청년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낙낙한 맛집, 전문가도 인정한 블루리본 서베이. 노원의 미각을 전해줄 맛집을 모아 보았다.



노원사람이 추천하는 맛집들에서 한결같은 점을 발견했다. 사장님의 넉넉함, 스태프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친절함, 적당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 노원의 로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충분했다.



페페그라노

‘이탈리아 본토 음식 스타일에 환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직접 맛을 보면 알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꾸덕꾸덕한 크림소스와 무엇보다 생면 파스타는 페페그라노의 치트키다. 빌라들이 즐비한 골목 안에서 페페그라노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단 요리가 나오면 함성이 터진다. 양도 양이지만 비주얼이 취향을 건드린다. 시그니처인 페페그라노. 까르보나리라고 해서 크림소스일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라. 오일리하고 치즈 풍미가 가득하며 직접 염지한 짭조름한 판체타(돼지 뱃살로 만든 베이컨의 일종)가 어우러져 ‘맛있다’. 페페그라노의 다른 메뉴로 매우 궁금하다.

Ⓐ 공릉로32길 5

Ⓑ 11:30-21:00(15:00-17:00 break time, 일요일 휴무)

Ⓒ 0507-1308-0570 Ⓛ @pepegrano_

1.
노원 사람이 추천하는 찐 맛집, 로컬 쿠진

Local Cuisine



숟가락반상 마실

잘 정돈된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자연에서 얻은 영양 가득한 제철 식재료로 준비된 한정식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고, 계절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오시는 손님에게 그 날 만든 요리만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표면에 내세운 것을 보면 허투루 음식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건강하고 담백한 영양죽, 신선한 채소와 치즈를 곁들인 그린샐러드, 해물잡채, 청포묵냉채, 녹두밥, 아욱된장 등 그 계절에 영양을 가득 머금은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요리를 내어준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메뉴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원로 412

Ⓑ 11:30-21:30(15:00-17:00 break time, 주말은 휴식 없음)

Ⓣ 02-930-5111

Ⓟ 평일점심 15,900원~, 기본정식 21,000원 Ⓛ @nowonmasil

1. 노원사람이 추천하는 찐 맛집, 로컬 퀴즈



옛날칼국수

노포 간판 맛집 인정. 열무김치, 배추걸절이, 보리밥이 먼저 나오면 초장에 잘 비벼 칼국수가 나오기 전에 배를 채우면서 기다린다. 바지락 국물 베이스에 호박과 당근을 듬성듬성 채 썰어 넣은 평범한 칼국수인 듯 싶지만 깊고 깔끔한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에 맛집 특유의 감칠맛이 더해져 젓가락이 쉴 틈이 없다. 더운 여름에는 국내산 서리태 흑콩국수가 인기만점. 쫄깃한 손수제비와 얼큰수제비, 왕만두와 저렴한 가격의 해물파전, 청양부추전도 인기다. '성시경의 먹을텐데'에 나오면서 더 유명해졌다. 웨이팅을 각오해야 할지도.

Ⓐ 동일로 1417 Ⓣ 10:30-22:00(15:00-16:00 break time)
Ⓣ 02-939-6169 Ⓥ 칼국수 10,000원

전민규의 황제누룽지탕

92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양식 한끼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곳. 전민규의 황제누룽지탕은 일산 애니골에서 시작하여 노원역 근처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돌솥에 데워져 나오는 누룽지탕은 새우, 낙지, 죽순, 피망, 청경채 등 해산물과 신선한 야채가 가득 들어있고 누룽지와 국물 맛이 일품인 걸쭉한 소스에 탕으로 내어준다. 딱딱한 누룽지도 부드러워지고 그릇을 비울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되는 누룽지탕 한 그릇은 부모님과 함께하기 좋은 식사이다.

Ⓐ 노해로77길 14-8 Ⓣ 10:00-21:00
Ⓣ 02-937-0340 Ⓥ 해물누룽지탕 18,000원



닭한마리 공릉본점

네이버 총합 리뷰 수 6,000개 이상. 리뷰 수가 맛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말이 달라진다. 공릉동 닭한마리의 원조 본점이다. 닭한마리가 통째 들어가고 파를 가득 넣어 국물 맛이 시원하다. 떡사리, 감자사리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고 칼국수나 밥으로 마무리한다. 닭이 익는 동안 특제 양념소스를 만드는 데 고추 다진 양념과 마늘, 겨자, 간장, 야채를 넣어 버무리면 닭과 찰떡궁합 소스 완성이다. 이 소스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은데 비율이 중요하니 매장에 적혀 있는 비율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길. 사계절 보양식으로, 온가족 한끼 외식으로, 노원사람이 추천하는 찐 맛집이다.

Ⓐ 동일로 1020 Ⓣ 11:30-22:00(15:00-17:00 break time, 주말과 공휴일은 휴식 없음)
Ⓣ 02-972-7459 Ⓥ 닭한마리 25,000원



응순가재골수제비

수락산역 3번 출구를 나와 수락문을 통과한 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디자인거리와 천상병공원을 만난다. 그리고 머지않아 둘레길 만남의 광장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광장 주변으로 수락산 맛집들이 모여 있다. 그중에서도 응순가재골수제비는 생활의 달인 맛집으로 유명한 곳으로, 들깨가 들어간 단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수제비는 등산객뿐 아니라 주민들도 인정하는 맛이다. 막걸리 한 잔과 부전전을 곁들이는 손님들의 대화 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새콤달콤한 흥어회 무침은 수제비와 찰떡궁합, 별미 중의 별미다.

- Ⓐ 동일로242길 100 Ⓣ 11:00-21:00 Ⓤ 02-939-6778
Ⓟ 들깨수제비 10,000원



소문난 멸치국수

공릉동 국수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가성비 끝 판왕 멸치국수와 비빔국수, 수제비, 김밥과 함께 여럿이 다양한 메뉴를 시켜놓고 함께 먹기 좋다. 쫄깃하게 삶은 소면에 진한 멸치육수를 봇고 김가루와 간장에 삭힌 파를 고명으로 올려주는데 씹을 때 감칠맛이 돈다. 멸치육수가 잘못 끓이면 비린내가 나기 쉬운데 싱싱한 재료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불 조절이 관건이라고 한다. 별다른 것도 들어가지 않아 특이할 것 없는 김밥도 멸치국수와 참 잘 어울린다. 여름에는 새콤달콤 비빔면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고.

- Ⓐ 동일로173가길 81 Ⓣ 월-금요일 08:30-22:00,
토-일요일 11:00-22:00 Ⓤ 02-973-4337 Ⓤ 멸치국수 6,000원



풍미연

40년 전통 설렁탕 맛집으로 숟가락을 넣자마자 진한 걸쭉함이 느껴진다. 소면은 미리 들어가 있어 사골 국물이 잘 배었고 고기 양도 적지 않다. 이 걸쭉함은 턱뼈, 사골, 양지, 도가니, 꼬릿살 등 10여 가지의 뼈와 고기를 24시간 우리고 고아내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콜라겐이 그대로 느껴진다. 찰진 흰 쌀밥까지 더하니 배가 든든하다. 배추김치와 깍두기, 양파 간장절임을 세트 찬으로 내어 준다. 깍두기는 청량감이 돌아 시원하고 깔끔하며 배추김치는 젓갈향에 감칠맛이 돈다. 혼자여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1인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 Ⓐ 노해로85길 7 Ⓣ 24시간 연중무휴
Ⓣ 02-932-2316 Ⓤ 진한설렁탕 12,000원

2.
왁자지껄
청년들의
점심시간

Youth lunch time

학창시절 자주 가던 식당은 한상 가득 맛과 양으로 보답해 주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문득 그 맛이 그리워 동네 맛집을 뒤져보지만 그때 그 맛을 만족 시켜 주지는 못한다. 노원의 청년들이 추천하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맛집을 소개한다.

쪼매매운떡볶이

인심(人心)이 맛보다 강하게 기억에 남는 과기 대 맛집. 줄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살뜰히 안부를 물어봐 주신다. 한 사람은 주방에서 연거푸 떡볶이 짐통을 짊어 나르고 한 사람은 주문과 포장 담당이다.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두 자매의 오랜 내공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녀들의 어머니가 전체를 진두지휘하신다. 4천 원짜리 떡볶이는 떡볶이 퀸러도 다 먹지 못할 어마어마한 양이다. 살짝 매운 달콤한 양념 맛이 일품이다. 남긴 떡볶이를 포장하려고 하니 사장님 이 다음에는 반만 시키라며 팁을 주신다. 반도 많다고. 오랜만에 학교 앞 분식집이 생각났다.

Ⓐ 공릉로 208 Ⓣ 11:00-22:00(토요일 휴무)

Ⓣ 02-977-1120 Ⓤ 떡볶이 4.000원



감동식당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사장님의 가위바위보 게임. 갑자기? 가위바위보에 이기면 서비스 메뉴가 제공된다. '감동경매'가 진행되면 손님들도 갑자기 전투적인 분위기로 태세전환. 경매에는 무려 1,250g 짜갈비 2인분 밀키트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왁자지껄한 이벤트가 난무하는 이곳은 등갈비찜 전문점으로 TV 방송 '서민갑부'로 더 유명해진 곳이다. 지역 농가와의 협업으로 상생까지 생각하는 젊은 사장님의 경영철학도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이유이다.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이벤트가 이어지는데 명함을 남기면 추첨해서 현금을 선물한다.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신나게 한판 놀다가는 기분이다.

Ⓐ 한글비석로47길 58 1층 Ⓣ 12:00-22:00(15:30-17:00 break time)

① 0507-1311-4481 Ⓛ 감동등갈비찜 1인분 15,900원

① @gamdong_sikdang



돈까스 먹는 용만이

젊은 청년들에서부터 혼자 오신 중년의 여성까지 돈까스 먹는 용만이를 찾는 연령층은 다양하다. 돈까스 메뉴만 30종류를 훌쩍 넘기는데 어디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인기메뉴만 5종류를 선정해 놓았는데, 까르보 돈까스, 칠리마늘 돈까스, HOT 돈까스, 모짜렐라치즈 돈까스, 눈꽃치즈칠리 돈까스이다. 테이블마다 빠지지 않는 주문 메뉴는 까르보 돈까스. 녹진한 크림소스가 인상적이다. 넉넉한 양과 음료수는 무료(남기면 500원 요금이 발생하므로 주의!). 상계역 골목 안쪽 깊숙한 곳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 한글비석로20길 52 Ⓣ 11:00-20:30(월-화요일 휴무)

① 0507-1438-8870 Ⓛ 까르보 돈까스 12,000원



경복식당

요즘 서울 시내에서 백반집 찾기가 쉽지 않다. 백반은 저렴한 한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고물가 시대에 메인 메뉴에 여러가지 밑반찬과 나물반찬, 값비싼 금치(김치)와 국까지 갖추어 한상을 차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백반집이 점점 사라져갈 것 같아 아쉽다. 그런데 공릉동에 백종원도 극찬한 백반집이 있다. 입구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월결제 손님 식사시간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밥은 고봉밥, 10가지가 넘는 찬을 정성으로 내어주신다. 방송 영향인지 대기가 많고 대기할 때는 낡은 노트에 이름을 적어 놓으면 된다. 이런 곳에선 맛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간이 멈춘 서울의 소중한 백반가게, 경복식당이다.

Ⓐ 공릉로39길 10 대아아파트 상가

① 10:30-20:00(15:00-17:00 break time, 월요일 휴무)

① 02-949-7331 Ⓛ 가정식백반 8,000원(제육볶음추가 3,000원)

3.

후대에 남기고픈, 백년가게

Centennial Store

대를 이은 비법으로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가게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우수성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백년가게'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노원의 백년가게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



민부곤과자점

민부곤과자점은 1989년부터 지금의 자리인 보람아파트 상가에 자리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서울시 백년가게 동네빵집 1호점이라는 것.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민부곤 대표의 제빵 이력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사 초기부터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눈치챈 단골들의 꾸준한 지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베스트는 유기농 마늘바게트. 천연발효빵 르빵, 상계동 쫀득이도 인기메뉴이다. 수락산용은 알프스 몽블랑에 '몽블랑 케이크'가 있듯, 상계동과 수락산에 대한 애정을 담아 만든 메뉴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빵 기부를 해오고 있어, '착한가게'로도 지정되었다. 장인의 빵에 추억과 삶의 철학이 담겼다.

Ⓐ 한글비석로 474 보람상가 157호
Ⓑ 07:00-22:00(일요일 휴무) ⓑ 02-931-0008
④ 마늘바게트 5,800원

주부상회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는다는 기름집 주부상회는 1982년 창업 후 40년을 이어온 백년가게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부모님이 시작할 때부터 저온압착 방식을 고집해 왔고 지금 대를 이은 딸과 사위는 그에 더해 가열없이 압착 착유한 생들기름과 참기름을 신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저렴한 깨분이나 향미유를 사용하지 않고 통깨만 사용하고 있다. 가게에 진열된 기름은 깨끗해서인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거래처를 바꾸지 말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고집스럽게 가게를 이어오고 있다.

Ⓐ 동일로180길 40 1층 ⓒ 09:30-18:00 ⓑ 0507-1306-2434





엘리제 제과점

마들역 1번 출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엘리제 제과점. 아침 여섯 시 반이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지하철이 끊길 무렵까지 쉬지 않고 불을 켜는 최형일 제과기능장이 1994년에 문을 열어 30년째 주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며 서울시 인증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으로 인증되었다.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20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특히 인기있는 메뉴에는 4시간 끓여 만든 팥에 쑥, 단호박, 고구마 등 우리 입맛에 친숙한 재료를 넣은 쑥떡쑥떡브레드, 단호박브레드, 고구마브레드가 있다. 5층에 빵공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매일 직접 구운 빵들이 11시경이면 모두 1층 매장에 진열된다.

- Ⓐ 동일로 1538 12단지 종합상가
- Ⓑ 06:30-24:00 Ⓛ 02-936-2733
- Ⓓ 단호박 브레드 6,000원



장군숯불족발

설계역 1번 출구 설계역 문학공원 부근에 위치한, 노원에서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족발 전문점. 대표 메뉴인 '숯불족발'은 맛있게 삶아낸 족발을 숯불에 두 번 더 구워 바삭하면서도 숯불향이 잘 스며있고, 매콤한 특제 양념에 버무려 구워낸 '매운숯불족발'은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숯불 조리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족발보다 조리시간이 10~15분 더 걸리지만 불향이 가득 입혀진 족발이라면 기다림이 대수인가. 저녁에는 야장이 펼쳐지는데 분위기 또한 한 몇한다. 야채나 밀반찬이 깔끔하고 족발 한 상은 꽃이 활짝 핀 것 마냥 그 자태가 화사하다.

- Ⓐ 화랑로43가길 29
- Ⓑ 17:00-24:00(일요일 16:00-23:00, 월요일 휴무)
- Ⓣ 02-941-5882
- Ⓓ 반반족발 38,000원

4.

전문가가 인정한, 노원 블루리본 서베이

Blue Ribbon Survey



98



한국 미식의 기준 '블루리본 서베이'가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미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대중의 입맛은 수준 이상이다. 노원의 미식, 그 한 편을 들여다본다.

비스킷플로어

경춘선 숲길에 있던 빙글로어는 로스터리와 통합하면서 공릉역 2번 출구 가까이에 새로운 터를 잡았다. 작은 공간이지만 거친 듯 다정한 입구가 매력적이다. 우드톤의 내부에 경쾌한 오렌지 포인트가 밝고 귀여운 인상을 준다.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된 식물들이 한층 씩 해 보이는 것도 오렌지의 대비에서 오는 듯 하다. 주로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메뉴가 메인이며 싱글오리진 핸드드립을 선보이고 약간의 녹커피 음료와 구움과자가 마련되어 있다. BTS의 RM이 다녀가면서 더 유명해졌다. 2024년 블루리본 서베이에 선정되었다.

- Ⓐ 동일로190길 6, 1층 6호
- Ⓑ 08:00-19:00(토-일요일 10:00-19:00)
- Ⓒ 빙글라떼 5,000원



수락이오냉면

사장님의 재료에 진심인 20년 전통의 노원 로컬 맛집 수락이오냉면. 연예인 인증과 '생활의 달인' 등 다수의 방송 출연으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 맛집이다. 모든 재료와 양념을 직접 만들고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벽면에 사진으로 담아 놨다. '육수 만드는 과정', '돈가스 소스 만드는 과정' 등등. 들어서는 순간부터 먹고 나갈 때까지 심심할 새가 없다. 새로운 메뉴 양평군 지평면 들깨로 만든 '엘라스틴 둘기름 냉면', 빨대로 빨아먹는 '빨대냉면' 등 사장님의 아이디어와 센스가 돋보인다. 월 5.2톤의 육수가 나간다는 대표 메뉴 '수락산 주봉냉면'과 튀김왕만두, 돈가스도 인기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블루리본 서베이에 올려졌다.

Ⓐ 동일로237다길 7 Ⓣ 11:00-21:00(15:00-17:00 break time)
① 0507-1402-2515 Ⓛ 둘냉면 9,000원



참누렁소가든

1997년에 오픈한 고기맛집이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훌륭한 대접을 받은' 시간이었다. 소고기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빼지지 않는다는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운영해 온 곳으로 허영만의 만화 식객 제3권 '소고기 전쟁' 편의 정보가 거의 이곳에서 나왔다. 참누렁소가든은 소고기와 함께 돼지갈비도 유명한데 질 좋은 돼지고기를 1인분 220g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신선한 야채와 샐러드, 매실장아찌 등 정성스럽게 내어주는 찬들이 한결같이 몸에 좋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눈치 빠른 스태프들이 세심하게 모자라는 것들을 물어주고 쟁겨주는 배려가 깊이 인상에 남는다.

Ⓐ 공릉로63길 13 Ⓣ 11:00-22:00 Ⓛ 02-979-6400
① 돼지갈비 1인분 23,000원

제일콩집

서울 3대 콩국수 중 하나인 제일콩집이 노원에 위치하고 있다. 뽀얀 콩국물의 고소함이 입안에 착 달리붙는 걸쭉함이 일품인 곳. 40년 역사 노포의 향이 물씬 풍기는 입구에서부터 이미 대기줄이 심상치 않다. 산지 직송한 우리 콩만을 사용해 당일 아침에 직접 갈아 만든다. 콩국수를 시작으로 두부한방보쌈, 두부고기전골, 순두부, 감자부침, 콩탕(비지), 김치청국장, 두부찌개, 콩나물밥 등 콩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블루리본 서베이에 등록된 노원의 맛집으로 전문가도 극찬하는 곳이다.

Ⓐ 동일로174길 37-8 Ⓣ 10:00-21:00 Ⓛ 02-972-7016 Ⓛ 진콩국수 12,000원



시장의 떠들썩한 풍경 속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넉넉해 진다.
도깨비방망이로 똑딱! 모든 것이 있는 시장에 가면 두 손 가득,
아니 마음 가득 인심까지 채워오자.

5.

시장에 가면

Market food



100



공릉동 도깨비시장

1939년 7월 25일 경춘선이 개통되고 화랑대역(폐역) 인근에 노점상이 모여 들면서 시작된 시장이다. 도깨비방망이로 똑딱한 듯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항상 대기줄이 가득한 칼국수집, 천원 반찬으로 유명한 반찬가게, 정직한 기름을 판매하는 백년가게. 굳이 유명한 곳에서 줄서서 먹지 않아도 모든 가게가 맛집이고 백년가게다. 아케이드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더욱 편리해졌다. 경춘선 숲길 카페거리와도 가까워 출출한 배를 먼저 채우고 산책을 나서는 것도 좋겠다.

Ⓐ 동일로180길 53 ① 02-976-4143





상계중앙시장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상계동 주민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재래시장이다. 신선하고 넉넉한 인심의 아재가게,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레트로 감성 지극하는 방앗간, 학교 앞 분식집을 연상시키는 떡볶이가게. 편안한 분위기의 상계중앙시장은 최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재단장을 마쳤다. 눈, 비에 상관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한 지붕 아케이드, 새 디자인으로 교체된 점포 판매대, 장보기 편리함을 더해주는 고객지원센터와 공영주차장까지 완비되었다. 장보는 시간이 더 특별해지는 상계중앙시장에서 넉넉한 인심과 추억까지 담아보자.

Ⓐ 상계로23가길 24 ① 070-4141-1116



오래된 기찻길은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아름다운 숲길 산책으로 남았다. 골목에서
우연히 눈에 띈 카페의 커피 한 모금에
고요하게 미소가 번진다. 숲과 자연에
동화된 사람들이 그리는 감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한다.



카페 포레스트

노원의 감성을 그리다

1. 노원 카페산책

노원의 산책은 참 즐겁다. 우거진 나무 그늘, 쉬어갈 수 있는 다정한 벤치, 그리움으로 가득한 기찻길, 커피가 맛있는 동네 카페, 그 곁에 달콤한 디저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노원산책에서 만난 카페를 들여다 본다.



금남카페



금성디방

카페 포레스트

바위산의 위용을 자랑하는 불암산 자락에 흄가드닝샵과 반려식물병원, 가든라이브러리를 갖춘 노원정원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온통 식물로 가득한 이 공간에 카페 포레스트가 함께하고 있는데 '4rest'는 불암산의 꽃, 나비, 차, 숲 4가지의 힘을 의미한다. 스피어민트를 이용한 시그니처 메뉴인 '포레스트커피(민트 라떼)'를 비롯해 각종 티, 주스, 에이드, 어린이 음료, 반려견 음료와 케이크, 스콘과 같은 간단한 베이커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 나비들의 우아한 몸짓, 계절마다 피어나는 갖가지 꽃과 풀과 나무에 둘러싸인 불암산의 정취와 감성이 응축된 곳이다. 노원구민은 10% 가격 할인된다.

Ⓐ 한글비석로12길 51-49

Ⓑ 하절기(3월~10월) 10:00~19:00(월요일 휴관),
동절기(11월~2월) 10:00~18:00(월요일 휴관)

① 02-2116-0597 ⓒ 포레스트커피 4,500원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폐역인 화랑대역은 경춘선이 달리던 철도역이었다. 1939년 개통 당시의 이름은 태릉역이었으나 인근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을 따서 1958년 화랑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폐역이 되었다. 남겨진 화랑대역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인근은 레트로한 분위기의 화랑대철도공원으로 꾸며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화랑대역은 폐역이 되었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에서는 폐역의 스토리를 품고 지금도 기차가 달린다. 주문한 음료가 담긴 기차가 테이블까지 배달해준다. 카페 안은 이색적인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 화랑로 608 ⓒ 11:00~21:00(월요일 휴무) ⓑ 0507-1329-4399

금남커피

상계동 골목 안 오래된 빌라 건물 1층. 차분한 분위기의 실내 공간과 우거진 숲을 연상시키는 싱그러운 야외 테라스, 차고를 개조한 캠핑 컨셉의 공간까지. 월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한 것인가. 이 동네 사람들은 좋겠다, 집 앞에 이런 카페가 있어서. 신선한 원두가 가진 부드러운 산미와 꽃향이 짙게 느껴진다. 따뜻한 카페라떼는 우유 속에서도 커피의 향과 맛을 다 살렸다. 커피 맛은 물론이거니와 빵이 제대로다. 바삭한 걸면, 부드러우면서도 버터 풍미가 가득한 속이 촉촉한 시오빵(소금빵)은 별미 중의 별미. 구음과자도 잘 갖춰져 있다.

Ⓐ 노원로30길 45 ⓒ 09:00~22:00 ⓑ 02-932-0517

② 카페라떼 5,000, 시오빵 3,000

1. 노원 카페산책



금성다방

경춘선 숲길에 면하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카페이다. 짙은 앤틱함이 배인 탁자와 스테인드글라스 조명, 적절하게 배치한 소품까지 레트로 그 자체다. 1970년대 즈음 집안에 있었을 법한 다이얼을 돌리면 톡톡톡 소리가 나는 TV, 아마도 손가락 보호용이었을 파란색 망을 써어 사용하던 선풍기. 디테일과 센스가 돋보인다. 다크아즈와 케이크류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레트로 분위기에 조금 식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금성다방의 작은 디테일에는 놀라게 될 것이다.

① 동일로186길 77-17 ② 10:30-24:00 ③ 0507-1473-1511
④ 아메리카노 4,000원

위플랜트위커피

경춘선 숲길에 위치한 유럽 가정집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이다. 실제로 주택을 개조해 독특한 분위기가 살아있다. 2층 테라스석이 인기가 많고 안락한 소파나 가구들이 인스타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벚꽃 시즌에는 2층에서 공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여유가 각별할 듯하다. 바로 옆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골목이 위치하고 있다.

① 동일로178길 59-39 2층
② 월-금요일 15:00-23:00, 토-일요일 11:00-23:00
③ 02-6498-2580 ④ 카페라떼 5,000원



오피커피

동네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와 샌드위치가 있

으면 너무 즐겁다. 친구도 데려오고 싶고, 날이 맑으면 노트북 하나 챙겨서 찾고 싶어진다. 오피커피는 그런 곳이다. 멀지 않은 곳에 당현천이 있어 강 산책을 겸해도 좋다. 말간 유리창 너머로 창 밖 풍경이 펼쳐지는 오피커피는 잠봉뵈르, 스모크 살몬, 바질 토마토 등 샌드위치 종류가 다양하고 단호박파이와 소금빵도 놓치지 말아야 할 메뉴. 저녁 6시 이후에는 와인바로 운영되고 반려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① 노원로26나길 12 1층 ② 화-금요일 10:00-21:00, 토-일요일 10:00-22:00(월요일 휴무) ③ 0507-1362-0474
④ 잠봉뵈르 샌드위치 8,000원 ⑤ @ooffee.c_coffee

커피콩

생과일빙수와 오리지널 옛날팥빙수가 유명한 커피콩. 특히 2~4인분에 해당하는 생망고빙수는 보기만 해도 입이 찍 벌어질 정도다. 그 외에도 생자몽, 생딸기, 통메론, 제주녹차빙수 등 비주얼만으로도 압도적인 빙수들이 인기메뉴. 시선을 자극하는 양증맞은 커피콩 빵은 커피와 곁들일 디저트로 안성맞춤이다. 생과일 라떼를 시그니처라고 표기하였을 정도로 과일 라떼에 진심인 커피콩. 과일 이외에도 고구마, 흑임자, 쑥, 밤, 달고나밀크티라떼 등 다양한 라떼류도 인기다. 모든 빙수 메뉴는 오후 2시부터 판매되지만, 계절과 과일 수급에 따라 판매 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① 동일로191가길 19 1층
② 월-금요일 11:00-21:00, 토요일 12:00-20:00,
일요일 12:00-18:00 ③ 0507-1405-6164 ④ @coffeekong11
⑤ 옛날팥빙수 12,900원, 생망고빙수 24,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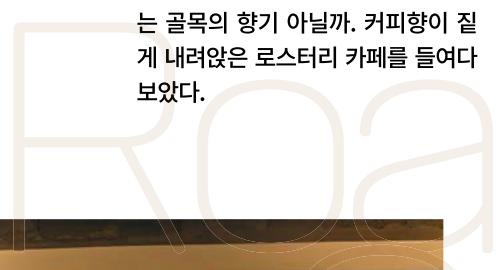




2.

골목을 채우는 짙은 향, 로스터리 카페

지금은 달리지 않는 경춘선 철길에
숲길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풍경은 바뀌었다. 그중 가장 큰 변화
는 골목의 향기 아닐까. 커피향이 짙
게 내려앉은 로스터리 카페를 들여다
보았다.



호이플로이 커피로스터스

공릉동의 로스터리 카페. 커피 맛과 분위기, 외국인 오너가
직접 로스팅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카페 내부의 짙은 채도
까지 매력적인 곳이다. 언제나 만석이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가능하다면 이곳의 아메리카노를 즐겨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필터커피로 내려주므로 에스프레소를
원할 경우 주문할 때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 원두는 진한
커피 맛, 과일 산미, 부드러운 디카페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과일 산미의 깔끔한 맛이 인상적이다. 커피뿐만 아니라
휘낭시에, 마들렌, 스콘, 브륄레 등 구움과자, 그리고 소금빵도 매우 인기다. 참고로 호이플로이는 '보통사람'
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평일이라면 분위기를 조금 더
만끽할 수 있다.

Ⓐ 동일로186길 64 Ⓣ 10:00-22:00 ⓑ @hoipolloi.coffee
Ⓑ 필터커피 4,300원(테이크아웃 3,500원),
솔트카라멜 휘낭시에 3,500원(2ea)

블루마일스 커피로스터즈

2층에 위치한 블루마일스 커피로스터즈는 창가에서 경춘선 숲길이 시
원스레 내려다보인다. 특히 벚꽃 시즌이면 이곳 창가 좌석은 이른 아
침부터 각축전이 펼쳐진다. 휘날리는 꽃잎도 창으로 들어올 정도이니
풍광은 오죽할까. 2019년 오픈해서 아직 공릉동에 카페가 없을 때 들어와
지금은 공릉을 대표하는 로스터리 카페로 자리 잡았다. 커피의 맛은
물론이거니와 경쾌하면서도 힘한 매장 분위기도 인기에 한몫하
는 듯하다. 거기에 디저트까지. 뮤지션 출신의 오너가 들려주는 플레
이리스트도 빼놓을 수 없다.

Ⓐ 동일로190길 65 2층 Ⓣ 12:00-23:00 ⓑ 0507-1469-1016
Ⓑ 피콜로아이스크림라떼 7,500원

2. 골목을 채우는 절은 향, 로스터리 카페



어빌리티커피

특별할 것 없는 외관이지만 어빌리티커피만의 조용한 카페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다양한 종류의 스페셜티 원두를 필터커피로 맛볼 수 있고 특히 에스프레소로 다양한 라떼를 즐길 수 있다. 달콤하고 묵직한 커스터드라떼, 바닐라빈라떼, 솔티캬라멜라떼, 라벤더라떼, 스몰라떼 위에 수제 바닐라크림이 올려진 피콜로비앙코 등 라떼 좋아하는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카페이다. 200g의 원두를 구매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카페 안 분위기가 훨씬 좋으니 안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보길.

Ⓐ 동일로180길 61-7 ⓒ 10:00-23:00
① 0507-1358-0152 Ⓛ 필터커피 5,500원부터



호호커피집

석계역 1번 출구에서 광운대역 방향으로 조금 걷다 보면 고소한 커피 향이 코를 자극하는 호호커피집을 만난다. 매장 내부에는 스태프들이 결점두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다. 카페 바로 옆에 로스팅실이 있어 타이밍이 좋으면 갓 볶은 콩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눈으로, 코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이 자리에서 문을 열어 14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호호커피집은 예전에는 2층에 좌석에서 전철이 달리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지금은 1층만 운영 중이다. 기본적으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지만 간이 의자의 불편함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스태프들과 두렵두련 온전히 커피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 월계동 65-1 ⓒ 09:00-18:00(일요일 휴무)
① 0507-1418-8454 Ⓛ @hohocoffeeroaster
④ 핸드드립 시그니처블렌드 4,000원



3.

늦은 아침을 즐기는, 브런치

조금은 늦은 아침을 맞이해도 되는 날,
브런치는 어떨까. 불암산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발길에서 조금은 멀어진 곳
도 좋겠다. 하루 정도는 사치스러운 일
상을 보내도 좋지 아니한가.



코타브레드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을 통째 사용하는 대형 브런치&베이커리 카페.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코타브레드의 브런치는 베네딕트, 토스트, 샌드위치, 생면파스타 등 메뉴가 다양하고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한다. 빵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순서대로 나오는데 천연발효종을 사용하고 유화제, 방부제, 마가린이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빵이다. 프랑스 노르망디산 고메버터가 들어가 풍미가 가득한 당일 생산된 빵만 판매한다. 1층은 통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캐주얼한 분위기, 2층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분위기, 3층은 혼자 작업하기 편한 카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 공릉로 165

Ⓑ 09:30-22:00(브런치 메뉴는 15:00까지)

Ⓒ 02-6956-5607 Ⓛ @kotabread_

메모아

맛있는 가게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 그 감각이 날개를 편 곳이 바로 메모아. 공릉동 골목, 일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 유명하다는 제일콩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메모아는 카페 안팎으로 유럽 감성이 활활 흐르는 곳이다. 붉은 색 이탈리안 토분에 담긴 여린 유칼립투스가 손님을 맞는다. 유럽시장 고수인 지인이 이 가게의 미장을 도우셨다고. 요즘에야 유럽시장이 흔해져 여기저기서 볼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는 흔치 않다. 오너가 직접 여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부탁해 공수받은 작은 소품들이 가득하다. 맛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증명하고 있었다.

Ⓐ 동일로174길 37-16 Ⓛ 10:00-19:00(화요일 휴무)

Ⓒ @cafe.memoire Ⓛ 바질페스토 파스타 16,000원



브런힐

불암산 뷰를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 무엇보다 적당한 가격에 다양한 브런치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것도 호텔 출신의 셰프가 만들어준 요리를. 큐브 믹스 야채와 부드러운 매시트포테이토까지 곁들인 최상급 소고기 스테이크가 25,000원이니 다른 메뉴는 말할 필요도 없겠다. 동네 브런치 카페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옥상에 오르면 테라스가 펼쳐지고 이곳에서도 시원하게 불암산이 펼쳐진다. 햇빛 좋은 날, 시간이 넉넉한 날 생각 없이 앉아 있기 딱 좋은 곳이다.

Ⓐ 중계로8길 48 Ⓛ 10:00-21:00(월요일 휴무) Ⓛ 0507-1415-0349

Ⓒ @cafe.brunhill Ⓛ 수제 잠봉 샌드위치 13,000원

4.

걸어서 빵지순례, 디저트&베이커리 맛집



무드쉐어

108 공릉 철길에 위치한 감성 무드 카페. 우드톤의 정갈하면서 아늑한 분위기의 실내와 철길 산책로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까지. 낭만과 고즈넉함이 교차하는 그 어디쯤인 가 무드쉐어가 있다. 상큼한 과일을 올린 컵케이크는 정성스러워 먹기 아까울 정도. 테이블웨어도 무드쉐어만의 분위기로 어느 것 하나 빛나감이 없다.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드쉐어는 최애 카페가 될 듯하다. 꽤나 늦은 시간 까지 운영되므로 밤의 무드를 느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 공릉로 119-23 더하우스 1층

Ⓑ 12:00-23:00

Ⓣ 070-8286-6626

ⓘ @cafe.moodshare

₩ 무화과컵케이크 5,800원

노원은 빵의 성지다. 노원의 백년가게에는 동네빵집이 2곳이나 선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장인의 숙련된 노포 빵집에서부터 숲과 사람을 잇는 공릉 기찻길의 톡톡 튀는 개성 넘치는 디저트 카페까지. 노원 빵의 성지로의 초대.



마카모예 브레드바

강릉에서 베이글로 유명한 '마카모예'가 공릉동에 베이커리 카페로 자리 잡았다. 예쁜 2층 주택을 개조해 2023년 5월 오픈 이후 꾸준한 메뉴 개발로 이미 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시그니처 메뉴는 어디에서도 본 기억이 없는 '김빵'. 김밥인지 빵인지 너무 혼란스럽다. 실제 바질참치김빵, 바질와사비김빵은 식사 대용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마카모예하면 역시 베이글이다. 감자모예, 체다할라피뇨, 대파베이컨, 잠봉뵈르 베이글 샌드위치까지. 군침이 쏙 도는 메뉴 구성이다. 2층 통창 옆 자리에서 햇살 좋은 날 브런치를 즐겨도 좋겠다.

Ⓐ 동일로190길 61 지하1~지상2층

Ⓑ 10:00-22:00 Ⓣ 02-6449-2228

Ⓐ 바질참치김빵 7,000원,

감자모예베이글 5,500원

아메리카노 4,000원



감각

마치 영화 속 어느 한 공간, 혹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공간의 구성이 인상적인 카페이다. 하지만 상계동 카페 감각의 시그니처는 누가 뭐래도 폭신풍신하고 달콤한 부드러운 텍스처의 수플레. 은근히 수플레 맛집을 찾기 쉽지 않은데 제대로 맛을 내는 카페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수플레는 시즌 별로 재료가 달라지는데, 딸기, 피스타치오, 블루베리, 복숭아, 말차크림 등 계절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공개한다. '뉴트로와 엔틱의 세련된 만남'이라는 해석을 얻으며 한국 최우수 브랜드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사각형의 장면(scene) 속에 사람도 미장센이 되는 공간이다.

Ⓐ 상계로 77 Ⓣ 11:00-22:30

Ⓣ 0507-1338-4177

ⓘ @cafe_gamgak Ⓣ 수플레 15,000원





메트로폴리스

베이커리 중에서 페스츄리, 특히 크루아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메트로폴리스의 크루아상은 프랑스산 고급 버터인 이즈니버터가 반죽 사이사이 들어간 12겹의 크루아상이 매일 아침 구워진다. 우유생크림, 블루베리, 스리리차BELT샌드위치, 카야, 아몬드, 말차생크림 등 디저트에서부터 식사 대용까지 종류만 10가지가 넘고 에그타르트, 소금빵까지 레퍼토리가 다양하다.

Ⓐ 동일로178길 11-9 Ⓣ 10:00-24:00 ⓐ 0507-1392-6632
① @metseoul ⓑ 블랙 폴 카스테라 10,000원



시드누아

노원의 흔치 않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노원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시느누아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묵직한 나무 문을 밀치고 들어서면 높은 천장으로 개방감이 도는 1층이 드러나고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진열되어 있다. 2층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창으로, 지하는 벽면 가득 미술작품으로 채워져 있어 갤러리를 연상시킨다. 노원이 본점이며 최근 속초 지점이 오픈하면서 숨명때리기 좋은 카페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상계로 84 ⓒ 일-목요일 11:00-23:00, 금-토요일 11:00-24:00
Ⓣ 0507-1333-9559 ⓑ 블랙커피(filter) 4,800원, 에그타르트 4,200원



미라쥬양과점 공릉철길점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터진다. ‘세상에나,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20가지가 넘어 보이는 각양각색의 구움과자가 매장 한편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미리쥬양과점은 15년 경력을 기진 특1급 호텔 출신의 파티세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만큼 고급스러운 맛을 보장한다. 요즘 귀하다는 두바이초콜릿도 휘낭시에, 마들렌, 쿠키로 맛볼 수 있다. 공릉철길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 동일로182길 63-21 Ⓣ 11:00-20:30
① @ mirage shop ⓒ 마들렌과 휴남시에 3,400원~



스윗레시피

스윗레시피의 첫인상은 '이런 곳에 디저트 카페가 있어?' 2층 계단을 올라야만 만나게 되는 스윗레시피는 생크림케이크로 유명한 카페이다. 첫 인상에서는 작은 물음표가 떴지만, 2층에 도착하는 순간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었다. 우드톤의 내부는 잘 배치된 플랜테리어로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었고 앤티크 소품들이 인스타그램을 자극한다. 망고스틴, 무화과 등 계절 생과일을 활용한 생크림케이크가 인기이며 오렌지캬라멜, 밀크티소콜라 등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메뉴도 잘 갖춰져 있다.

Ⓐ 상계로1길 38 2층
Ⓑ 13:00-21:00(화요일 휴무) ⓑ 0507-1407-1064
① @cafe_sweetrecipe ⓒ 무화과생크림케이크 8,500원

5.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한잔 술, Pub&Bar



110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

‘맥주 좋아하세요?’ 노원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그것은 아마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조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내 여성 1호 브루마스터 김정하 대표가 운영하는 수제 맥주 전문점 바네하임이 화랑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일본 국제맥주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벚꽃리거’부터 수요미식회에서 선정된 ‘강미에일’, 그외에도 여러 종류의 바네하임 기본 크래프트 비어를 맛볼 수 있다. 최근 IBC 2024 SAPPORO에서 또다시 금메달과 동메달을 동시에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 기능성 쌀을 사용한 쌀맥주 ‘도담도담’은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된 국내 최초 맥주이며, 문경사과 100%로 사과를 발효하여 만든 증류수 ‘문경바람’도 바네하임에서 만 맛볼 수 있는 우리술이다.

Ⓐ 공릉로32길 54 Ⓣ 15:00-24:00(일요일 휴무) Ⓤ 02-948-8003
① @vaneheimbrewery Ⓥ 장미에일 7,900

나뭇잎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거리던 동네는 밤이 되면 따뜻한 무드 등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며 한껏 로맨틱한 자태를 뽐낸다. 추억으로 남을 노원의 밤이붉게 물들었다.



루맨틱

다양한 술과 맛있는 요리를 함께 하고 싶다면 루맨틱을 추천한다. 좁은 도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뜬금없이 위치한 루맨틱은 문을 여는 순간, 올리브 오일과 버터의 기름지고 고소한 공기, 따뜻한 무드 등이 감싸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여기 좋다’라는 짧은 탄성이 새어 나오는 곳.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해 안주로도, 식사로도 요리가 좋다. 8천 원 선에서 하우스 와인을 즐길 수 있고 요리에 어울리는 술은 스태프에게 추천받을 수 있다. 3대 진미 송로버섯 오일과 통통한 새우살이 둠뿍 들어간 트러플 오일 파스타, 채소 구이가 함께 나오는 큐브 스테이크가 대표 메뉴. 기념일 혹은 편한 저녁식사로 혼자여도 좋을 장소이다.

Ⓐ 공릉로 104 1층
Ⓑ 15:00-24:00(일요일 휴무)
① 0507-1339-2940 ① @room...antique
② 와인 하이볼 9,000원, 트러플 오일 파스타 19,000원



웨일스

분위기 끝판왕. 공트럴파크 술 한잔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자리한 웨일스는 입구부터 범상치 않다. 길 잊은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오두막에 들어온 느낌이다. 낮은 조도를 밝히는 테이블의 작은 등이 차분하게 기분을 가라앉힌다. 일단 웨일스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잔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을 곳인데, 특히 칵테일 종류는 100여가지에 달하고 맥주, 위스키, 하이볼, 와인 등 술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웨일스에 착석하면 무료로 팝콘이 제공되는데 질리지 않는 이 맛에 '웨일스에 팝콘 먹으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 평소에는 1테이블 1메뉴이지만 월요일은 스페셜데이로 정하고 외부 안주를 가져와 술만 주문 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니 확인하고 방문하길. 분위기에 취하고 싶다면 웨일스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후문 공트럴파크 쪽에 위치하고 있다.

Ⓐ 공릉로35길 22 Ⓣ 월 17:00-01:00, 화-목 18:00-01:00,

금-토 18:00-03:00, 일 18:00-02:00 ⓐ 070-4647-0210

ⓘ @whales_pub ⓑ 칵테일 13,000원(칵테일의 종류마다 다름)

노원수제맥주 협동조합

'맥주는 양조장 끝똑 그늘 아래서 마실 때 제일 맛있다 –독일속담-' 노원 바이센, 수락산 골든에일, 초안산 스타우트, 불암산 IPA 등 노원의 대자연에서 이름을 가져온 노원구의 질 좋은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곳이다. 양조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제맥주 기초 이론에서부터 제조과정의 이해를 돋기 위한 공장 견학과 실습을 겸한 맥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담한 크기의 1층 내부 매장은 조용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한글비석로46길 3 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1층

Ⓑ 10:00-18:00(12:00-13:00 break time, 토-일요일 휴무)

Ⓣ 02-937-8288

Ⓥ 수락산 골든에일 6,000원



SURAKSAN SUNS

CHAPTER 3

노원을 살다

노원은 일상이 축제다. 축제를 통해 계절을 만끽한다.
축제를 즐기는 것, 노원을 사는 똑똑한 방법이다.



SET MUSIC FESTIVAL





4월 | 불암산 철쭉제

봄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4월,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에는 10만 주 철쭉의 만개를 알리는 ‘불암산 철쭉제’가 개최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꽃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철쭉동산뿐 아니라 불암산 힐링타운 곳곳에서 축제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명실공히 서울을 대표하는 철쭉제로 자리 잡고 있다.



4월 | 당현천 벚꽃 음악회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당현천은 맑은 물에 새들이 날아와 가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빛길과 정원을 즐기는 도심 속 자연공간이다. 당현천 강변에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 되면, 당현천 벚꽃 음악회가 개최된다. 흘날리는 벚꽃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고품격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며 당현천을 낭만으로 물들인다.

5월 | 노원수제맥주축제

경춘선 화랑대 철도공원을 메인 무대로 펼쳐지는 노원수제맥주 축제는 철도와 공원, 자연과 맥주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축제이다. 인근 육군사관학교의 화랑회관 앞 수변공간 까지 축제의 장을 넓혀 가고 있으며 전국 30여개의 브루어리가 참여하여 총 200여 종의 수제맥주를 선보인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면 할인 혹은 추가 맥주를 제공하고 주최 측에서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에 힘쓰고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에는 유명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문화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끈다.





5월 |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노원의 어린이날 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어린이날을 맞아 노원역 인근에서 개최된다. 7차선 도로 550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어린이들의 즐거운 놀이동산으로 변신시킨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들로만 추려 본무대에서 펼쳐지고, 각종 테마별로 구역을 갖춰 풍성한 볼거리와 놀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5월 |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공릉숲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카페거리, 일명 '공리 단길'을 중심으로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가 개최된다. 해외 커피 생산국의 커피 부스 외에도 전국적인 116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카페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 시연을 펼치고 이를 맛보기 위한 시민들이 끝도 없는 긴 줄을 만든다. 공릉동 커피 상권의 다양한 로컬 브랜드 커피와 디저트 카페는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주며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가 단순히 노원의 지역 행사가 아닌 전국의 대표 커피 축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월 | 수락산 선셋음악회

봄의 기운이 무르익어 태양의 기운도 짙어지기 시작하는 계절, 수락산의 수려한 풍경과 노을을 배경으로 한 '수락산 선셋음악회'가 개최된다. 어쿠스틱, 인디, 포크 등 세대를 아우르는 고품격 음악을 선보이며 수락산 선셋을 배경으로 한 낭만적인 풍경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한 장면이다. 사전 예약과 입장 모두 노원구민만을 위한 축제로, 노원에 살고 싶게 만드는 선물같은 음악회가 아닐까 싶다.



10월 |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는 봄을 알리는 ‘당현천 벚꽃 음악회’, 수락산의 노을과 어우러지는 ‘수락산 선셋음악회’와 함께 노원 3대 음악회로 불린다. 내 집 앞 가까이 편안한 복장으로 산책하듯 나와, 누구든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지향점으로 둔 만큼 계절별로 펼쳐지는 공연들이 어느 하나 거를 것 없이 다채롭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부터 화려한 밴드 공연까지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추고 가을 밤을 낭만으로 수놓고 있다.



10-11월 | 노원달빛산책

달빛 산책하듯 즐길 수 있는 공공미술 빛조각 축제 노원달빛산책이 친환경 생태하천인 당현천에서 개최된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11월에 걸친 한 달 동안 당현천은 아름다운 빛의 향연으로 물든다. 상계역에서 중계역까지의 2.5km 구간을 국내외 작가의 작품과 청소년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완성한 작품들이 산책로를 따라 전시되며 미디어 퍼포먼스를 펼친다. 거리예술과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더해져 축제는 더욱 풍성해진다. 노원달빛산책은 지역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공공미술 축제로 자리하며 「제 14회 생산성 대상」을 수상하였다.

일상이 축제 NOWON FESTA

117



9월 | 노원거리페스티벌 댄싱노원

노원역 일원 7차선 도로 550m 구간에서 펼쳐지는 노원의 대표적인 거리페스티벌이다.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동적인 거리 퍼레이드를 보고 있으면, 노원이 젊음과 문화의 열기 가득한 도시임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젊고 역동적인 도시 노원의 구민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축제는 퍼레이드존, 댄스테마존, 가족테마존으로 구성된 약 15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고 메인 프로그램인 퍼레이드 경연에는 실버팀, 아동·청소년팀, 대학일반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댄스, 무술, 타악, 마칭밴드, 힙합 등 화려한 경연을 펼친다. 또한 축제장 주변에는 노원의 수제 맥주와 먹거리, 지역 상품을 사고파는 브랜드페어를 열어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





당현천 음악분수

노원산책

발행일 2025. 03

발행처 노원구청 미디어홍보담당관

기획 및 편집 (주)피그마리온

비매품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원산책



노원
문화도시 노원